

【해 제】

만주조선인 문학 건설 신제창*

서재길**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제국 일본은 이듬해인 1932년 선통제 푸이(溥儀)를 집정으로 하는 만주국을 수립하면서 서양 열강의 식민지와는 구별되는 '독립국가'를 표방하였다. 이러한 만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양적 '왕도정치(王道政治)'와 더불어 '오족협화(五族協和)'가 그 통치 이념으로 제출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내선일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제국 일본에 의한 일방적인 '황국신민화 정책'이 진행된 것과는 달리, 만주국에서는 '오족협화'라는 슬로건 아래 다민족 공존을 표방하는 조치들이 형식적으로나마 추진되었던 것이다. 일본 관동군의 '내면지도'를 통해서만 성립하는¹⁾ '괴뢰국가' 만주국의 민족 차별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오족협화'는 조선 지식인들에 의해 전유(appropriation)됨으로써 이데올로기 그 자체가 지니는 담론적 효과와 체계모니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즉 조선 지식인들은 극단적인 동화정책인 '내선일체'와는 상충되는 '오족협화'를 민족 차별에 반대하는 이데올로기로 전유함으로써,²⁾ 만주국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조선/조선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장받으려 했다.

문학 및 문화의 영역에서 이는 '만주국 선계(鮮系) 문학/문화 건설'을 통해 복합 민족국가인 만주국의 국민 문화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로 나타났다.³⁾ 조선

* 이 연구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22S1A5A2A03048910).

** 국민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1) 야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역, 2009, 『키메라·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 田中隆一, 2007, 『滿州国と日本の帝国支配』, 有志舎.

의 언어와 로컬리티가 살아 있는 독창적인 문화의 창달을 통해 만주국 건설과 ‘오족협화’의 실천에 기여하자는 조선문화 담론이 제기된 것이다. 만주국이라는 국민국가 만들기(nation-building)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조선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자는 논리인 것이다.⁴⁾

1940년 초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만주국 조선문화 건설 및 조선인 문단 결성 담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은 당시 만주국의 유일한 조선어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만선일보』였다. 주지하듯 『간도일보』(1924.12 창간)와 『만몽일보』(1933.8 창간)의 병합(1937.10.21)으로 탄생한 『만선일보』는 식민지 조선의 『매일신보』와 마찬가지로 관변지로서의 성격이 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만 조선인 문학을 가능하게 한 거의 유일한 매체였다는 점에서 만주국(문화)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는 적지 않다. 재만 조선인들이 ‘오족협화’라는 만주국의 관변 이데올로기를 민족주의적 방식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만선일보』는 식민자(colonizer)와 피식민자(colonized) 사이의 ‘절충(bargaining)’이 이루어지는 ‘식민지 공론장(colonial public sphere)’으로서도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개하게 되는 자료는 이러한 ‘식민지 공론장’ 『만선일보』에서 펼쳐진 재만 조선인 문화·문학 담론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일련의 논설들이다. 1940년 1월 12일 ‘만주 조선문학 건설 신제의(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라는 기획 아래 황건의 「만주 조선인 문학과 문학인의 신념」을 필두로 연재되기 시작한 일련의 논설은 1월 17일 윤도혁의 「만주 조선인 문학의 전통성과 특이성」부터는 특집의 제목이 ‘만주조선인 문학 신제창(滿洲朝鮮人文學建設新提唱)’으로 바뀌게 되어 이후 같은 제목으로 2월 6일까지 총 21회에 걸쳐서 연재된다. 황건, 윤도혁, 김귀, 박영준, 김춘강, 이광현, 현경준, 신서야, 안수길, 송지영 등 10명의 필자가 참여한 일련의 논설들의 구체적인 목록은 아래와 같다.⁵⁾

3) 이해영·임몽, 2013, 「만주국 ‘신제’ 문학 건설과 안수길」, 『한국현대문학연구』 40, 한국현대문학학회.

4) Lehyla G. Heward, 2020, “Writing ‘Manchurian-Korean Literature’ in the *Mansön ilbo*, 1937-1942”,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33, no.2.

5) 단 1940년 1월 25일자 조간이 결호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26일자 金春崗의 논설 제목 「文學의 精神을 創定하고 搖籃을 만들어 놓차(下)」로 미루어 볼 때 25일에 같은 글 (上)이 게재

저자	제목	연재일자
黃建	滿洲朝鮮人 文學과 文學人의 信念 (上)	19400112
黃建	滿洲朝鮮人 文學의 特殊性 (中)	19400113
黃建	滿洲朝鮮人 文學의 今後 發展策 (下)	19400116
尹道赫	滿洲朝鮮人 文學의 傳統性과 特異性 (上)	19400117
尹道赫	滿洲文學의 方向과 文學人의 態度 (中)	19400118
尹道赫	明日의 文學史와 作品의 價値 (下)	19400119
金貴	農民文學의 方向으로 (上)	19400120
金貴	國民文學으로부터 世界에 進出토록 (下)	19400122
朴榮濬	作家의 輩出과 讀者의 向上을 緊急動議 (上)	19400123
朴榮濬	現段階의 眞實한 批評과 發表機關의 期待 (下)	19400124
金春崗	文學의 精神을 創定하고 搖籃을 만들어 놓자 (下)	19400126
李光賢	文學 開拓의 設計圖	19400127
玄卿駿	文筆家의 待遇부터	19400129
申曙野	滿洲朝鮮文學의 性格과 特異性 (上)	19400130
申曙野	滿洲朝鮮文學의 性格과 特異性 (下)	19400131
安壽吉	滿洲에도 일지기 朝鮮文學이 잇섯다 (上)	19400201
安壽吉	間島中心의 朝鮮文學 發展過程과 現段階 (中)	19400202
安壽吉	文壇建設의 具體案과 文學人의 迫力的 活動 (下)	19400203
宋志泳	底流에 彷徨하는 情熱 / 大地春陽에 將有事于西疇矣! (上)	19400205
宋志泳	新樹立의 知行併難 / 蒼山の 日暮, 거름을 썰리하자 (下)	19400206

『만선일보』가 재만 조선인 문학 연구(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보면 '만주국 선계 문학' 연구, 나아가서는 재만 조선인의 문화활동 전반을 연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한 것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재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연세대 소장본(마이크로 필름 형태로만 이용 가능), 영인본(아세아문화사본과, 고성도서유통본)이 있고 이 중 아세아문화사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언론재단 등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로 극히 일부분만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접근성과 가독성 면에서 신문 영인본의 이용은 지극히 제한적인 실정이

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만주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만선일보연구회(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과제 수행 연구팀)에서는 앞으로도 『만주연구』 지면 등을 통해 『만선일보』 소재 만주국 조선인 문화활동 관련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소개하고자 한다.

【자료소개】

〈일러두기〉

- 아래 자료는 1940년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만선일보〉에 ‘滿洲朝鮮人文學建設新提唱’이라는 제목의 특집으로 연재됐던 논설들을 입력한 것이다.
- 내용은 원문 그대로 입력했다. 다만 가독성을 위해 현대 어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했으며, 문장 끝에 마침표를 추가했다.
- 자료의 각주는 입력자가 설명을 위해 추가한 것이다.
- 오기가 분명해 보이는 경우 입력자가 본문을 수정하였다.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기했다.
- 자료입력: 국민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우정덕, 장은애, 김채봉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 (1) — 1940.1.12.

滿洲朝鮮人文學과文學人的信念(上) — 黃健

이곳에 사는 우리 수요가 百萬을 넘으며 우리에게는 말이 있고, 글이 잇스니 거기에 따라서 文學이 업슬 수 업다. 勿論 過去에도 이곳에서 朝鮮文化 方面的 各種 作品이 發表되지 안흔 것은 아니나 그는 너무도 散漫하였스며 너무도 區區 不一하였든 것이다. 文壇의으로 그럴듯한 中心的 存在라는 것이 거의 업섯다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이것을 그대로 내비리 둘 수는 업는가 한다. 오늘부터라도 새 出發을 하여 두렷한 存在를 世上에 알리고 못 알리기는 쏠혀 우리의 힘에 달렸다. 우리의 손으로 이것을 建設하고 우리의 손으로 이것을 거두지 안흐면 안 될 것은 새삼스리 느낀 우리는 느졌스나마 이 問題를 가장 眞摯하게 檢討해나가지 안흐면 안 될까 한다. 滿洲에 朝鮮文學을 建設하라면 어

편 方面, 어떤 用度에서 어떤 形式 어떤 手法 等等으로 着手하며 開拓해 나가야 될까. 여기에 對하여 滿洲 안에 계신 여러분의 意見을 綜合하여 文學人의 參考에 이바지하며 우리 文壇의 向할 바 길을 檢討해볼까 한다. (記者)

鴨綠 豆滿의 兩江을 건너 大陸 곳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지 長久한 歷史를 가졌고 現今 百萬이 넘는 엄청난 人口 數字를 보이고 있는 滿洲國 內 朝鮮人이 享有코 있는 文化 狀態를 一觀할 제 實로 寒心한 바 적지 않다.

이곳에는 朝鮮人의 移住史가 가지는 歷史的 政治的 모든 特性이며 經濟的 諸般 不利한 條件이 影響된 바 적지 안겠스나 此 等 事實에만 文化 稚幼의 責任을 돌리기에는 先驅한 그들이 渡滿하여왔든 直接 理由가 政治的 亡命에 잇섯든 經濟的 生活 打開에 잇섯든 于今까지 끌고 온 그들의 文化 意慾이며 活動이 얼마나 微微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再考치 안할 수 없다. 滿洲國 建國理念은 民族協和를 根幹으로 하였든 만큼 우리들은 이 民族協和 精神에서 비롯한 一個 國民으로서의 役割을 力量껏 하기 爲하여서도 經濟的 生活 意欲과 더부러 좀 더 個性的인 精神的 意識과 靑센 活動을 가졌서야 할 것이다.

이곳에서는 文學에 對하여만 二三 愚見을 展開하여 보고저 하나 個 有의 文化를 向上시키고 國民이 가진 바 生活 形態를 純化高揚식힘에 잇서 文學의 힘이 얼마나 偉大한 것이냐 하는 것을 過去 人類史 속에서 차지볼 제 經濟的 初創期를 너머 文化的 萌芽期에 들었식다고도 볼 수 잇는 今日에 處한 滿洲朝鮮人 文學의 啓蒙的 使命은 너무나 큰 바가 잇는가 한다. 이러한 意味에서만도 좀 더 노픈 氣焰과 眞摯한 意圖를 가진 文學人의 有機的 意識的인 活動이 苦待된다. 이것은 文學 乃至 藝術의 政治에의 隸屬을 要求한다든가 文學 自體의 獨自性을 忘却한 無理한 意圖에서가 아니라 甞까지 文學 自體가 가진 바 自主性의 見地에서 하는 말이다. 文學이라 하며 遺形 抽象 特殊 藝術이라 하며 모—든 文化 觀念 形態란 人類의 生活과 不可分離의 關聯을 가지고 잇는 理에서이다.

文化, 文學은 元來 그 屬性이 超民族的이며 人類的인 곳에 그 優位性이 잇는 것이겠다. 왜냐하면 文學이란 언제나 人類 最高 理念을 그 終局의 目的으로 하는

것이며 政治가 手段을 가리지 않는 時에 文學 乃至 文化는 手段 自體까지를 目的으로 하는 까닭이다. 目的은 文學 乃至 文化에 잇서선 手段까지를 意味하는 까닭이다.

그리고 이 人類的이기 爲하여서의 文學이란 그 個 有의 屬性을 가장 圓滿히 發揮할 수 있는 畵에만 期待할 수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記憶에 써오르는 것은 『가장 個性의인 畵에 가장 社會的일 수 있다』는 지—드의 말이나 우리들에게는 今日 民族協和를 motto—로 하는 滿洲國에 잇슴으로 하여 더 意義 있는 試鍊場이 賦與되어 있는 것이인지도 몰은다.

文學의 發展도 客觀的 모든 條件의 合理的 發展線에 沿하여서만 促成되는 것이며 그 發展이 劃策되어져야 하겠으나 一步 나아가서 文學人 自體의 主體的 役割의 더한 偉大함을 忘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도 過去 한 時代의 正確한 歷史와 그것에서 비저지는 現在 任務을 解得한 眞摯한 文學人의 活動이 기다리지는 바이다.

朝鮮文壇을 거쳐서만 敎育바더왔든 우리들은 朝鮮文壇의 成長을 傍觀하는 것으로 自慰自足하려는 非反省의인 習性이 업지 안혔다. 그러타면 이곳에서 提起되어져야 할 問題는 우리들이 朝鮮을 쉰나 滿洲國에서 生을 享有하고 잇는 그 眞實한 意義가 어디에 잇는야 하는 것이다.

生의 一時期를 他特定 時期에의 그 어선 附隨 時期로 設定 看做하는 어리석은 짓은 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一分一秒가 모아서 우리들의 生을 이루는 것과 同樣으로 一分一秒는 一分一秒로서의 本然한 意義와 自主性이 잇슴을 忘却하여서는 不可할 것이다. 今日의 意義란 來日의 準備에 잇는 것이 아니라 今日은 또한 今日로서의 不可侵의 自主性을 固有하고 잇는 것이다. 여기에서만 우리들 人間生은 誠實스러울 수 있고 敬虔할 수 잇는 것이다. 滿洲에서 生活함은 故鄉에 도라가기 爲하여서만의 準備에서가 아니라 滿洲에서 生活하는 그 生活 自體 속에 잇지 안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이 釀出 造成하는 副次的인 結果나 意圖를 否認함은 決코 아니나 自主性을 보담 더 尊重히 하고 시픈 意味에서이다. 말하자면 現在 라는 것을 더 意義 잇게 살리는 것으로 하여 未來까지 더 빛나게 하자는데 잇다.

그럼으로 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진 環境이며 時代를 疎忽히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만 滿洲에서의 朝鮮人 文學의 眞實한 活動과 發展이 始作되는 것이다. 歷史란 循環한다고들 말하나 歷史란 歲月을 舐나 생각할 수 업는 것이고 歲月이란 永遠히 가서 못 온다는 點에 잇서 人生과 同一하며 歷史란 그러나 오르나 歷史라는 點에서 더 悲劇의이며 人間的 모—든 反省 自覺은 이곳에서 더 새로워져야 하고 더 眞實스러워야 할 것이다. 地上을 좀 더 人間 自體의 地上으로 하고 歙息에서의 不斷한 祈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곳에서만 滿洲에 와 잇는 鮮系國民의 國民다운 役割도 생각할 수 잇는 것이다.

勿論 우리들 滿洲朝鮮人 文學은 滿洲國에 썩리를 박은 同時에 그 出發을 비롯한 鮮內文壇과 永遠히 不可分離의 關聯을 가질 것이다. 새 地域 새 世代에는 새 부름이 잇서야 할 것이며 이는 祖父 代가 틀리고 아버지 代가 틀리고 村에 간 짚은 都會에 出嫁한 짚에 업는 조흔 點이 잇고 都會로 出嫁한 짚은 村에 간 짚에 업는 조흔 點이 잇는 것과 同一한 理이다.

故郷을 舐나는 意義는 故郷에서 못 본 것을 體得 創造하는 데서만 그 貴重한 意義가 發願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先驅한 그들이 生活을 開拓하여 주엇슴과 同樣으로 이 世代의 文化를 질머진 우리들에게도 所謂『捨石』의 役割이 要請되는 것이다. 偉大한 建設 偉大한 人間樂園의 미래는 恒常 偉大한『捨石』의 先驅가 잇섯든 것이다.

偉大한 捨石의 精神의 先驅가 잇섯든 곳에만 實로 偉大한 記念碑가 짚어섯든 것이다.

滿洲朝鮮人 文學의 빛나는 將來는 오늘의 쏘한 빛나는 捨石의 精神을 불러 마지안는 것이다.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 (2) — 1940.1.13.

滿洲朝鮮人文學의 特殊性 (中) — 黃健

滿洲文學 現段階의 問題로 鮮系文學은 그 出發을 鮮系라는 範疇가 가지는 歷史性과 滿洲를 發展 地盤으로 하는 性格의 究明에서 始作되지 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既述한 바이나 이는 文學이란 元來가 人間의 頭腦에서만 고시란이 짜내는 영웅한 것이 아니라 끈힘 엮는 時間의 흐름 속에 안겨 人間生活의 廣漠한 範疇와 堆積을 通하여서만 發生 成長할 수 있다는 까닭에서이다. 文學에 對한 生活이란 그 母體요 生長의 地盤이며 不可分의 關係가 있는 까닭이다.

生活을 通하여서만 能히 人間 魂을 움즈기게 할 수 있는 理念이며 靈感이며 이것이 昇華된 藝術 文學이 생기는 것이다. 偉대한 文學일수록 偉대한 生活의 昇華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을 通한 偉대한 人間 魂의 發顯에서만 始作되는 것이다. 偉대한 理念 偉대한 哲理 偉대한 靈感이란 모다 偉대한 人間生活 偉대한 生 속에서 發揮되었을 제 비로소 偉大할 수 있는 것이다. 톨스토이며 셔섯더에프스키며 쇠테의 偉大함은 眞實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들 精神의 너무나 크나 큰 흐름이 人間 魂을 일뜨게 하여 안어 쓰들어 가는 그 힘이 源由하는 곳은 그들이 어느 만큼 偉대한 生活을 體驗하였고 偉대한 人間性을 發見 創造하였느냐 하는 事實에 있는 것이다.

썰아서 이곳 滿洲文學의 性格을 究明하여 보려는 마당에 있서 우리는 이 特異한 地域을 舞臺로하는 特異한 文學이 成長할 地盤의 特性과 歷史와 그곳에 맞민 할려는 現在 文學 主體의 性格을 究明치 안혀서는 안 될 것이다.

卽 再言하면 滿洲에 있서서의 滿洲文學이란 窸까지 滿洲國이라는 機構와 이 大陸이 가지는 性格에서 비저진 우리들 社會的 歷史的 生活 속에서 發揚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 우에 問題될 것은 文學 乃至 文學人의 現在 到達코 있는 姿樣의 究

명이다. 卽 主體的 性格의 檢討와 批判을 거치서의 明確한 自覺 反省이 要求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如上의 根本 性格을 帶한 滿洲朝鮮人 文學이 所謂 移民文學이 될지 大陸文學 亡命文學 鄉愁文學이 될지 或은 異國情緒를 노래하는 文學이 될지 過去 左翼文學이 要求하든 植地地 性格을 씩인 文學이 될지 或은 阿片文學의 形態를 가출지 이는 以後의 이곳 文學人의 眞摯한 檢討에서 成果될 것이며 이곳에서는 더 言及코 십지 안으나 要는 이러한 請點에 留意한 眞摯한 氣焰의 文學人이 續出하여 만흔 問題와 作品活動을 提示하여 달라는 것이다.

滿洲에 있는 日系 文壇人 사이에 요지음 루포르다—주가 現在 課題로 提起되고 잇슴과 如함에도 多大한 關心을 가질 必要가 잇겠다.

滿洲朝鮮人의 生活이 移民性에 그 根源을 두고 잇다 하여 滿洲朝鮮人 文學이 곳 移民文學이요 農民文學이 되어야 한다고 主張함과 如함은 速斷의 지나친 것일 것이며 滿洲에서는 亦是 內省 文學 心理主義 文學이람도 發展할 根據가 잇는 것이며 都會 生活을 中核으로 하는 文學 畵루도 能히 窺될 수 잇을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든 文學人 自體의 敎養形態며 環境이며 性格 素質의 如何에 依存할 바 만켓스니 어느 것이든 滿洲文學으로서의 獨自의 性格을 體得 創造하러 不斷히 志向하는 곳에 빛나는 來日의 그 成果가 約束될 것이다.

이곳에서 銘記하여 둘 것은 모—든 文化 形態는 恒常 그것이 源由한 傳統으로 不斷히 돌아간다는 命題인데 그러타면 우리들 滿洲朝鮮人 文學이 가진 傳統이란 무엇이냐 하는 問題이다. 勿論 儼然한 意味의 滿洲朝鮮人 文學이란 文學 傳統을 갖고 잇지 못하다는 意味에서 우리는 現段階에 初創 啓蒙期의 名目을 賦與할 수도 잇는 것이겠다. 그러나 우리의 先祖가 우리의 故郷에 잇고 우리의 成長이 故郷을 떠나서 업섯다는 것과 똑한가지로 우리 滿洲朝鮮人 文學도 故郷의 概念을 떠나서는 到底히 생각할 수 업슬 것이다. 떨어져 그 故郷을 떠나서 自體를 생각할 수 업는 것과 同樣으로 朝鮮文壇이 가지고 잇는 傳統(쌀버도 傳統은 傳統이다)과 의 聯結을 忘却하여서는 到底히 그 成長을 생각할 수 업는 것이다. 이 傳統과의 聯結을 잘하는 同時에 우리는 이 傳統에서 또한 잘 分離하여써 成長치 안으면 안

될 것이다.

이곳에서 비로소 滿洲朝鮮人 文壇이 朝鮮文壇의 그대로의 延長이여서는 안 되며 떨어져 地方的 役割에 쓰쳐서는 안 된다는 眞意가 있는 것이 滿洲朝鮮人 文學이란 곳까지 『朝鮮文學』이며 滿洲에 와 있는 滿洲國 鮮系國民 卽 滿洲朝鮮 文學人만 이를 수 있는 文學이다. 다시 말하면 滿洲라는 國家와 그 歷史와 特異한 性格만이 가질 수 있는 獨自的 文學 卽 滿洲文學이여야 할 것이며 그러기 爲하여서는 朝鮮文學의 傳統을 가장 잘 消化 攝取하여야만 될 것이다 이로써만 비로서 그의 圓滿한 成就가 期待될 것이다.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 (3) — 1940.1.16.

滿洲朝鮮人 文學의 今後 發展策 (下) — 黃健

그러면 이러한 文學을 發展시키여써 이곳에 滿洲朝鮮人 文壇이라는 것을 形成시키고 그의 赫赫한 成果를 期待키 爲하여서는 어셔한 具體的 文化活動이 必要한가. 이는 우리가 自身을 보담 더 眞實한 文學徒로 推進시키는데 잇서 가장 重要한 事項이 아닐 수 업다. 實踐의 敷衍이 업는 곳에는 아모리 卓越한 提議 理論이 잇드라도 한갓 價値 업는 休紙의 存在임에 不過할 것이며 理論이 잇는 곳에는 반드시 實踐이 잇서야 한다. 實踐이 잇서야만 비로소 理論은 살어질 것이며 實踐은 또한 光彩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곳에 如何한 實踐이 要求되는가? 쓰고 發表하고 그것을 읽고하는 그곳에서 文學人의 實踐이 甞치는 것은 決코 아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빛나는 作品活動을 가져야 할 것은 贅言을 要치 안는 것이겠으나 보담 더 意識的이요 社會的이요 歷史的인 文學實踐을 爲하여서는 보담 더 能動的이요 計劃的이요 有機的인 實踐이 必要하겠다.

元來 文學實踐이란 廣義로는 文學人 自體의 意識인 生活 全體를 包含하는 것 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이곳에서는 狹意의 直接 聯結을 가지는 文學活動을 말하고저 한다. 부끄러운 대로 率直히 말한다면 우리는 于今까지 이리타 할 文學 活動이라는 것을 가지보지 못하였든 것이 事實이겠¹⁾ 따라서 우리는 손수 滿洲朝 鮮人 文壇이란 名目을 부칠 수 있는 何等의 文壇形態도 有機的 造成機運도 갖지 못하였든 것이다.

回顧컨대 이만큼 오랜 歷史와 數만흔 文學人이 生活하고 있는 滿洲에 文學人 各自가 그 一生의 業을 배푸를(그 以上의 意味일지도 몰으나) 文學의 自生的 活動 機關이 될 同人誌 하나 업섯다는 것은 우리들이 한결가치 지니여야 할 부끄러움 이 아닐 수 업섯다. 이는 應當 우리들이 일즉이 生活에 陷入된 채 生活에만 목긴 바 되어 甞에서의 無自覺과 消極性에 잇슬 것이다.

滿洲에 잇서서의 唯一한 朝鮮人 言論機關인(奉天에 『在滿朝鮮人通信』이라는 月刊物이 잇기는 하나 問題 삼을 수 업다) 在滿滿鮮日報(間島, 滿蒙時代를 거처) 紙上을 通하여서만 微微하나마 그의 作品活動과 아울러 多少의 主唱을 들고 跛行 的 行脚을 하여온 이곳 文學活動이란 너무나 分散 無計劃 그것이었으며 그것도 近頃에 와서는 이마저 終熄을 告할려는 不況 悲運에 陷入된 狀態이다. 雄大한 하나의 文壇을 建立하고 그곳에서 自己發見을 이룰려는 보담 더 有機的이요 積極的 이요 意識的인 眞摯한 意圖와 活動이 이곳에는 必要하였든 것이겠다.

一時 二三 文學人 間에 『東滿文學』 『移民文學』 或은 『滿洲文學』의 旗幅이 올려져 文壇 形成과 獨自의 文學 建立을 爲하여 싸올려는 불타는 氣焰과 閃光이 보이기도 하였고 詩며 小說이며 隨筆로 作品活動을 한 힘찬 文學人들도 만었으나 積極性의 缺乏으로 因한 活動의 中斷이라든지 有機的 形成 機運의 不足에서 비롯된 無秩序와 散漫함이라든지 이곳은 文字 그대로의 荒蕪地에 不過하였다, 그 모 든 氣焰과 情熱이 甞내 結實치 못한 채 流産되었슴의 그 『捨石』의 役割이란 한편 將來 이루어질 우리들 文學史를 裝飾하는 눈물겨운 形跡이 아닐 수 업스나 그

1) 조판 실수로 인해 문장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

럼에도 또한 遺憾되는 點도 너무나 만엇든 것이다. 試練場이 되고 活動舞台가 될 自己 機關이 업슴이란 文學實踐에 잇서 한개 致命的인 條件이 아닐 수 업섯겟스며 이 우에 또 가튼 同人의 贊助를 得德치 못함의 더한 悲哀가 잇섯슴을 記憶하여야 할 것이다.

滿鮮日報紙를 利用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他人의 權限 內에 잇는 것이며 今日 新聞이 싸지고 잇는 商品性이며 그의 浮動性이며 日刊紙로서의 紙面 制約이며 發表 內容의 相兇 等으로하여 이것만에서의 圓滿한 文學 發展이라는 것을 期待할 수는 到底히 不能한 것이엇겟스나 이 機關이람도 한번 社會에 開放 提供된 以上 이는 우리의 舞臺일 수 잇섯스며 甞까지 그리치는 못하다 치드라도 文學人 自身の 根氣잇는 活動의 持續과 研究에 싸러서는 보담 더 有益 且 計劃的인 利用도 생각할 수 잇섯슬 것이다.

上記한 이곳 文壇(?)의 無秩序며 散漫性에 더 부채질한 것에 이즐 수 업는 것은 在滿朝鮮 文學人 間의 意識的 無意識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朝鮮文壇에의 不斷한 鄉愁었다. 일즉히 成長의 滋養을 바다 呼吸의 始初를 이루엇든 朝鮮文壇에의 鄉愁는 이곳 滿洲朝鮮人 文學의 悲觀的 運命觀을 清算 못한 데서 더 致命的이엇든 것이다. 文學 修練의 目標를 朝鮮 中央文壇에의 進出에 두고 그곳에서의 가까운 榮華를 憧憬하여 왓든 나머지 이곳 滿洲에서의 活動 實踐이라든지 自身이 棲息코 잇는 이곳 文壇에 留意함에서의 더한 價値며 意義도 생각함이 업시 文壇 建設에의 모든 意欲을 喪失 忘却케 되엇든 것이다. 朝鮮文壇에는 조흔 作品을 보내면서도 이곳에서는 그 나머지 駄作을 부스러움 업시 發表 하거나 朝鮮에는 發表하나 이곳에는 發表치 안는 이러한 조치 못한 傾向도 이한 가지로 解釋될 것이었다. 前者의 例로는 얼마 前에 連作 發表되엇든 『初戀手帖』을 들 수 잇스며 後者의 例로는 在滿先輩 諸氏를 列舉할 수 잇슬 것이다. 이곳만 으로는 自身의 成長을 企圖할 수 到底히 업는 今日의 狀態로는 이는 不可避한 事實이겟스며 그를 制止하려는 것은 愚行의 極이 아닐 수 업겟스나 한갓 銘記코 시 픈 것은 朝鮮에서도 만흔 빛나는 活動을 보여주되 自己 處所인 滿洲에서도 그와 同一한 誠意와 努力 미테서 作品活動을 하여달나는 것이다. 이 鄉愁를 넘은 自制

있는 小說이나 詩 隨筆 等 作品活動이 잇서야 할 것은 勿論이나 이로부터는 만흔 批評行動(月評 作品研究 滿洲文學論 文章論 等等)도 잇서야 할 것이다. 그럼에 依하여서만 文學人 사이의 有機的 聯結도 一層 強化될 것이며 이것에 依하여서만 이곳에 發表되는 小說이며 詩며 隨筆의 作品活動이 無意味에 쓰치지 안흔 것이다. 그럼에 依하여서만 自主性은 이루어지고 活潑한 同人誌 文藝誌의 出現도 巴랄 수 잇을 것이며 滿洲朝鮮人 文學 乃至 文壇의 形成이 期待될 수 잇을 것이다.

再出發을 意圖하려는 오늘에 와서는 過去 한 時代의 行跡에 對한 具體的인 만흔 批判 檢討와 그에 싸르는 清算이 잇서야 할 것이며 그것으로 하여 企圖되는 無系統 無舞臺의 荒蕪地 이곳에서의 우리들 再出發이란 出發最初의 動機부터가 單은 不運에의 覺悟와 犧牲을 必要로 하는 것이겠다.

이곳에서는 보담 具體的 論策이 必要할 것이겠스나 예서는 다음에 滿洲朝鮮人 文學 發展策 몇 가지를 들어누는 것으로 이 拙稿는 攄마치기로 한다.

當面 問題로 滿鮮日報를 通하여 有機的 文壇 聯結을 圖謀할 것.(이에 압서 新聞 編輯者의 힘찬 意圖를 待望한다.)

協和會 文化部 文藝班에 加入 活動할 것.

同人誌의 出現을 企圖할 것.(圖們에서 요지음 計劃되고 잇다 함은 반가운 消息 이다.)

作品集의 出版을 劃策할 것.(이도 哈爾濱에서 滿洲文學人만의 作品集이 計劃되고 잇는 模樣으로 同人의 만흔 協助가 必要하겠다.)

先輩 大家들의 後輩를 爲한 參加와 引導를 巴랄 것.

滿洲朝鮮人文學建設新提唱²⁾ — 1940.1.17.

滿洲朝鮮人文學의 傳統性和 特異性 (上) — 尹道赫

滿洲에 있어서 우리의 開拓史를 只今 새삼스리히 들추어 내어 論議하려는 바가 아니로되 只今으로부터 選及한 千餘年 前 高句麗 旣의 政治的 乃至 文化的 存在를 그 當時의 時代性에 비치어 高價로 評할 수 잇슴은 우리의 自誇하야 마지안는 바이며 이리케 悠久하고 燦然한 歷史性을 가지고 現在 滿洲國 全國民 四千萬에 比하면 實로 問題도 안 되는 小數이나마 建國精神에 基하야써 構成分子의 一員인 役割을 擔當하고 잇스니 거기에 相伴된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義가 內包되어 잇고 使命과 命題가 賦與되어 잇슴도 또한 拒否 못 할 事情이다. 이러한 重大한 要素와 責務를 가진 우리가 果然 어느 限度까지 그 任務를 遂行하엿으며 그 存立性을 是認할 수 잇는가 할 旣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진 바 諸般 要素의 貧弱性을 背定치 안할 수 업고 過去 足跡의 缺陷을 慨歎치 안할 수 업슴은 한 개의 悲哀인 同時에 對外的으로 慚愧하야 마지안할 일이다. 이는 勿論 過去 우리의 政治的 環境이 그만치 不利하야 散沙와 가티 無統制 無秩序한 根據업는 生活에 多分히 基因하엿을 것이나 要는 그것을 檢討하고 內省함이 업시 泰然自若하게 默過하야 建國 後 벌써 八年이라는 긴 歲月이 지나도록 文化的으로 이리타 할 目的遂行이 업섯고 體形을 가추지 못하엿슴은 우리의 가장 痛嘆하야 마지안할 일이다.

더구나 여기에 論題가 賦與된 文學에 있어서서는 全然 荒蕪地 그대로임을 否定할 수가 업다. 至今 滿洲에 잇는 幾多의 文學家 文學 愛好家를 윈통 無視해 버리라는 獨斷에서가 아니라 大概가 朝鮮 內의 文學體系를 그대로 延長 繼承하고 잇슬뿐이지 理念에 있어서도 滿洲라는 獨自性이 充分히 發揚되지 못하엿고 性格의 創造란

2) 이번 연재물부터 특집의 표제가 ‘滿洲朝鮮人 文學建設新提唱’으로 바뀐다. 하지만 표제가 바뀐 다음 에도 이전 특집에 이어 넘버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획 아래 연재된 글로 볼 수 있다.

이 또한 疑問視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滿洲 內에서 制作된 幾篇의 作品을 檢討해 볼 때 朝鮮 內에서의 文學形式 거기다가 若干의 滿洲의 色彩를 糊塗하였고 鄉愁的인 情緒를 加味하여 노흔 作品이 大部分인 것이다. 勿論 거기에는 우리의 文學(新文學)이 가진 바 傳統體系가 本來 歐米文學을 輸入한 日本文學을 再移入한 것 등의 그 經路로 보아 맞당히 잇슴즉한 일이고 一步 나아가 生覺할 때 滿洲라는 自體가 亦是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모—든 存立性이 日本의 그것에 依存하였고 거기다가 理念만 東亞에 잇는 各 民族을 協和國圓시키어 구성하여 노흔 集約 國家이기 때문에 각자 民族이 제 各금 自己民族의 特殊性을 發揮하는 가운데에 다만 協和精神을 基調 發揚하고 잇슴과 가티 文學에 잇서서도 우리의 三十年 間 傳統을 無視하여야는 안 될 것은 煩說을 要치 안흐므로 이것을 母體로 하기는 하되 더 廣汎한 世界觀이 잇서야 하고 좀 더 스케—일이 큰 主觀을 가져야 할 것이며 滿洲라는 特異性을 뚜렷하게 나타내지 안흐면 안 될 것이다. 過去 朝鮮 內의 文學史를 더듬어 볼 때 三十 年 間의 文學 歷史야말로 과연 複雜 多彩한 形式과 內容을 가지고 왔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避치 못한 客觀的 潮流가 所以然케 한 바 잇겠지만은 初創期에 잇서 民族主義 文學이 그 當時 文學思潮의 牛耳를 잡었고 다음에 歐米에서 輸入된 浪漫主義 文學 自然主義 文學 社會主義 文學 一部에 象徵主義 文學이 이러케 모—든 角度와 形態를 가지고 急速한 發展의 過程을 밟아 오다가 支那事變을 契機로 이들 모든 傾向의 文學은 그만 重大한 時代的 變化에 當面케 되어 民族主義 社會主義的 形式을 가진 文學은 時代的 要請에 의하여 그 形態를 감추어 버리게 되자 自然主義 象徵主義 一部에서 古典文學이 머리를 들고 朝鮮의 ‘르넛산스’가 勃興하는 듯한 感을 주더니 近者에 와서는 東亞新秩序 建設에 順應하는 大陸文學이 表面化하게 되고 戰爭文學 愛國文學이 雨後竹筍과 가티 氣勢를 올리고 이러남도 또한 時代的 趨勢일 것이고 그와 同時에 有機的 結合體인 文人協會의 誕生을 본 後 戰線에 文人 慰問使까지 派遣한 일이 잇섯스며 現在 此 種 作品이 漸次 出現하고 잇슴도 銃後國民으로서 兵站基地인 朝鮮 文學者의 思想的 變化를 可히 窺知할 수가 잇는 바이다.

이러한 傾向을 가진 朝鮮文學을 母體로써 가지고 잇는 滿洲文學의 進路와 方向

은 자못 큰 意義가 存在해 있고 將來 朝鮮人으로서의 生活 自體의 進路를 明示하고 있는 滿洲에서의 文學이니만치 그 使命이 重且大하다할 것이다.

이러한 問題는 既往의 先驅者들에게서 모름지기 提起되었어야만 될 問題이고 그들의 指導原理에 順應해야 다만 文化的으로 犬馬之力의 役割을 다할 수 있는 我輩임에는 謙讓에서만 아니니 우리는 不幸하다 할 만치 過分한 責務가 지어잇슴을 늦기는 同時에 朝鮮 內에 있는 文學者들이 더 좀 먼저 關心을 가지고 研究하였어야만 될 形而上學的 論理를 셔난 當面問題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連環의 立場에서 滿洲朝鮮人 卽 現地 文學者들만이 解決할 수 있는 問題라느니보다도 朝鮮 內 文學 先輩들의 今後 積極的 支援을 鶴首期待하는 바이며 그 懇望이 成果되는 날에 明日의 健全한 發展을 約束할 수가 잇슬 것이다.

하기는 方今 朝鮮 內 某 新聞에 滿洲의 生活 舞臺를 素材로 한 大陸文學이라고 일컫는 作品이 掲載되고 잇서 朝鮮 內 作家의 大陸 進出의 指向을 가히 엿볼 수 잇스나 바라건대 좀 더 眞摯한 態度로 大陸開拓民으로서의 生活的 據點을 把持해야 주엇스면 한다. 물론 該 作家의 老鍊된 筆致나 力量을 疑心하는 바가 아니라 다만 火車에 몸을 실고 此 所謂 走馬看山 格으로 넓은 曠野를 車窓에서 보기만 하고 몇 군대의 開拓村을 訪問하는 것만으로 滿洲의 特殊性을 알아낼 수 잇고 一年을 通한 生活 態度를 그러케 짚은 時日로서 能히 把握할 수가 잇슬가 하는 點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나는 該 作의 健全성을 疑心안코 백이지 못한다. 米國의 閨秀作家로서 近代 紙價를 올리고 잇는 필 박 女史의 『大地』를 論할 쟈 그가 네 살 쟈에 自己 아버지를 辭라 中國에 왔섯고 自己 나라 말보다 먼저 中國 말을 배웠다고 함을 미루어 그는 大陸과 썩리 기픈 因緣이 잇섯기 쟈문에 오늘날 그로 하여금 大陸文學의 巨匠으로 尊敬케하고 잇는 것이 아닐까 한다.

滿洲朝鮮人文學建設新提唱(5) — 1940.1.18.

滿洲文學의 方向과 文學人의 態度(中) — 尹道赫

以上에서 일토탕도 안흔 前後 두 作家의 作品生産 徑路를 端的으로나마 對照하
었는데 前者의 作的 態度는 다만 概念이나 或은 概觀이나 抽象만 가지고 生産되
는 文學이니 그것은 抽象文學이나 概念文學은 될지언정 生活을 赤裸裸하게 描寫
할 수 있는 寫實文學은 될 수가 업는 것이다. 그러기 새문에 該 作이 어느 限度까
지 成功을 하였으며 朝鮮 內 讀者層에 얼마만 한 衝動을 주고 있는지 모르나 거
기에는 숨길 수 업는 虛構가 往往 露出되고 徒문이업는 矛盾을 指摘할 수 있게 되는
同時에 後者인 필 박 여사의 作的 態도와 그의 作品生産 過程을 考察할 새 그는
어릿슬 새부터 中國의 言語와 習慣에 익숙하였고 中國의 書籍과 詩 等이며 甚至
於는 稗史小說까지도 耽讀하여 漢文 知識으로도 中國人 同様の 豐饒한 滿養을 싸
엇슴도 周知의 事實이니 그와 가티 熱과 誠과 努力을 뭉친 結晶體가 『大地』가 아
닌가 한다.

이 두 가지 要因을 드러 論議할 새 滿洲에 있는 朝鮮人 作家는 傳統이 뿌렸하
고 言語 習性으로 보아 朝鮮人의 生活을 그리는 朝鮮文學은 勿論이고 滿洲人 生
活까지도 描作하여 『大地』 以上の 傑作을 生産할 수 있는 立場에 處하여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至今 워낙 遠距離에 잇서 力不及한 問題이니 그것은 將來
우리의 力量을 도두어가지고 問題삼을 일이고 當面한 課題로 告急을 要하는 것이
卽 우리의 生活을 主題로 하는 續 朝鮮文學이오 이것을 어저케 成長 發展시키느
냐 하는 것이 여기에 問題의 焦點이다.

元來 우리의 生活이 定着성이 업섯든 만치 文學 自體도 그와 가티 散漫한 雰圍
氣 속에서 胚胎된다. 이것이 우리의 過渡期이고 現在이다.

至今 우리가 이러타 할 아모런 歷史性도 地盤도 업는 文學建設을 意欲할 새 勿

論 各 個人의 主觀 乃至 理念에 따라 그 方法과 形式이 區區할 것이오 그 傾向에 따라 各樣各색의 文學 形體가 構成될 것이나 그와 同時에 우리의 確固한 信念과 自覺이 엮어서는 안 될 것이다.

假令 집을 질 새 먼저 設計를 잘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第一 우리의 精神的 修養이 엮어서는 안 될 것이다. 個人의 健全한 生活은 社會生活의 基本이 되고 그 社會精神을 表現하는 것이 卽 文學이라면 個人의 健全한 精神은 健全한 文學을 胚胎할 수 있는 所以이다.

滿洲는 面積 上으로 보아서도 朝鮮의 七八 倍는 된다. 그러니 우리의 主觀도 그만큼 廣大하여야 하고 數만흔 民族이 雜居하여 잇스니 우리의 生活도 特異 微妙한 바가 있다. 滿洲의 特異性이란 卽 그것이다. 一段 우리가 滿洲에서 生을 卜하게 되는 그 새부터 他民族과 協助生活을 하게 되는 運命에 잇게 됨으로 그만큼 우리의 主觀이나 세계관이 커지는 것이다.

이와 가튼 觀察을 할 수 있음으로 單純한 朝鮮 內에서보다 더 한층 達觀으로써 우리의 文學을 設定 築成시키지 안으면 안 된다. 決斷코 現在 不完全을 늦기고 잇는 『重二帶』式 畸形이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 朝鮮의 傳統을 살리고 古典美가 雅淡한 朝鮮式이라야 한다.

勿論 時代의 推移에 따라 數年 前의 移民文學이, 現在는 開拓文學이 될 수 있고 將來는 또 어찌한 命題가 賦課될는지 모르나 昔日의 移民이 現在 開拓民으로 變遷을 보게 된 것이 時代의 要請일진대 過渡期의 에미그란드의 집씨의인 氣分이어서는 到底히 안 되고 그와 함께 生産되는 文學 自體가 그런 傾向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時代의 叛逆이 아닐 수 없다.

朝鮮 內에 잇슬 새엔 누구나 滿洲라면 依例히 異國의인 憧憬을 하게 되지만 實在로 와서 보고 늦기는 感覺이란 그런 “액소틱”한 情緒가 엮게 되는 것도 四圍의 環境이 그러한 까닭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立場을 理解하고 眞實한 人間探求를 意欲하는 同時에 自己의 精神陶冶를 게을리 말며 不斷의 努力으로 多少間 難關을 逢着하더라도 果敢하게 克復하고 研鑽하는 곳에 우리의 文學은 튼튼하게 生長될 것이다.

위에서 滿洲의 朝鮮文學은 荒蕪地라고 했다. 그것은 너무나 暴言에 가까울 만
 치 滿洲 內 朝鮮文學의 存在를 無視한 듯 시프나 實在에 잇서서나 形式에 잇서
 이러타 하고 내늘 만한 아모런 有機的 連繫도 업고 表面的 形態를 가초지 못하였
 다. 그럼으로 現在 文學의 가진 範疇는 結局 우리는 朝鮮文學의 分家라고 보아
 妥當하겠다. 卽 換言하면 朝鮮文學을 遺産으로 바덧고 血統을 傳受하였다 할 것
 이다. 그것은 飛單 우리만이 아니고 日系 文學人도 그러타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日系 文學人의 文學的 動向을 볼 새 부러운 感이 있다. 文人들의 集約的 有機體라
 든지 作品 生産量과 日本 內地 間의 連絡이라든지 모도가 活潑하고 圓滑함을 볼
 새 우리의 貧弱함을 더욱 늦겨진다. 發表機關이 豊富함과 新京에도 文話會라는
 日本 內地人 文學家들만 主體가 되야 間或 座談會라든지 定期 集會를 하여 文學
 에 대한 批判과 研究와 檢討를 하고 東京 文壇과도 相互 連絡하고 잇스며 近者에
 는 日滿文學 協議會의 組織體 運까지 잇서 日本 滿洲 間에 名稱 그대로 文藝協議
 와 文化의 交流를 企圖하고 잇는데 이는 單純히 日本文學과 日本人 作家만이 아
 니고 滿洲人의 滿洲文學까지 翻譯하여 日本 內地文壇에 紹介하며 會員으로는 滿
 洲人 作家도 參加케 되는데 帝國臣民으로서의 朝鮮人 文學者가 거기에 參職치 못
 함은 무슨 까닭인가. 이는 日滿文藝協議會가 朝鮮人 作家를 愬視해서가 아니라
 우리 自體의 無爲無能함을 새다를 새 더욱 可歎할 일이다. 우리도 既往에 그만
 한 實力을 養成하였고 連絡機關을 가졌드라면 이새를 當하여 堂堂히 우리의 立場
 을 闡明할 수 잇는 우리가 안인가.

滿洲朝鮮人文學建設新提唱(6) — 1940.1.19.

明日의 文學史와 作品의 價値(下) — 尹道赫

朝鮮文學(新文學)의 過去 歷史性과 現在에 있는 段階로 비추어 그것을 나는 五期로 分하여 본다.

卽 胚胎期 草創期 啓蒙期 成長期 發展期라고 設定하여 노코 이것을 日本 內地文學(東京文壇)을 發展期 朝鮮 內文學을 成長期 이를 滿洲 內 各 民族의 文學的 段階에 設定하여 日系文學이 成長期 滿洲人文學(滿系)이 啓蒙期 그리고 朝鮮文學이 草創期라고 보아 疑心이 업을 것이다.

이러케 區分해 노코 보니 滿洲에서 우리의 文學的 地位가 얼마나 微弱한가를 自認치 안할 수 없다.

그와 同時에 現在 우리의 微微한 存在를 가지고 他民族과 文學의 協調 交流를 한다는 것은 極難한 일일 것이다.

現在 新京에서 보더라도 日系 文學者로서 滿系 文學을 專門으로 研究하여 多數한 滿系 作家의 作品을 日文으로 翻譯하는 이가 한 둘이 안일뿐 아니라 그 反面에 滿洲人 作家들도 日文의 發表機關에 掲載發表하고 있어서 日滿 間 現地 卽 滿洲에서의 文化 交流가 本軌道에 오르고 있는 感이 있스며 거기에 拍車를 加하여 더 좀 廣義的인 日滿文藝協議會란 組織體의 誕生을 보게 된 것도 決코 政治的 意味에서만 비친진 偶然한 事實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즉 우리도 우리의 周圍에서 이러나는 諸般 事態를 그저 等閑視해버리는 無批判 無反省의 態度에서 썬나 우리의 文學을 먼저 育成시키는 것도 目前에 切迫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醬에서 現在生을 營爲하고 將來 우리의 永遠한 繁榮을 꾀하고 썬리 기풍 根據를 세우자면 우리와 關聯있는 問題는 맞당히 뜻을 다하여 우리의 生活과 精神을 他民族으로 하여금 充分 認識시키고 아울러 文學을 통한 眞正한 民族協和와 道義國家를 具現시

켜야 될 것이다.

그리니까 우리의 文學建設에 잇서 進行해야 나갈 프로그램이란 荊棘 그대로 險路가 아닐 수 없으며 文學乃至 文化의 使命을 遂行코자 하는 者 모름지기 特別한 覺悟가 업서서는 안 될 것이다. 古센 意志와 覺悟로써 各自가 情熱을 기우려 研磨와 努力을 하는 곳에 自己의 質的 才能을 發揮할 수 있고 各自의 素養과 特長에 依하여 細部的 卽 詩에 素質이 잇스면 詩로 小說에 特長이 잇는 이는 小說로 이리케 勉勵 精進하는 동안에 詩人이 倍出하고 小說가가 나올 수 잇는 것인데 여기에 가장 警戒할 바는 詩라든지 小說이 幾篇만 活字化되고 보면 完成된 大家 然한 行勢를 하라는 輕薄하고 敬虔치 못한 마음과 學究者로서의 謙遜치 못한 態度는 버려야 할 것이며 地域的 關係로 遠距離에 잇스면 모르되 近距離에 잇다면 研究와 批判과 檢討를 爲主로 하는 어서한 雰圍氣 卽 크름을 맨드려 各自의 見解를 彼此 披瀝하고 眞正한 批判眼으로써 自己 襟度を 펴는 가운데에 새 知識을 잇게 되고 아울러 相對者에게 自己가 모르는 缺陷을 깨닫게 하며 遠距離에 잇스면 通信 等으로라도 連繫를 맺는 것이 緊要한 方法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한便 協和會 文化부가튼 機構를 利用하여 定期的 會合으로 相互 友誼的 親睦을 圖謀하는 同時에 知的涵養을 싸엇스면 한다. 新京에도 鶴林分會가 機構 上으로 보아서는 文化部라는 커다란 看板을 부치고 그 미테 各 部門을 通하여 文藝班이니 美術班이니 演劇班이니 音樂班이니 하는 広壯한 部署들이 連坐하고 잇스나 무엇을 하며 事業이 무엇인지 모름만치 無意味한 存在로 맞게 더 解釋될 게 업더니 近日에 드르니 새로히 革新을 企圖하고 部員의 人的強化와 今後 事業遂行에 到하여 銳意 努力 中이라 하니 이 쌍의 文化를 爲하여 慶賀할 바이며 今後의 活動을 더욱 期待하여 마지안는 바이다.

滿洲에서 文學을 이야기하고 文壇을 말할진대 間島 地方을 中心으로 하고 잇는 幾多 文學人만이 예전 間島日報 當時(내가 우에서 設定한 것에 依하면 胚胎期이 든 쎄)부터 現在의 滿鮮日報 學藝面이 唯一한 育兒所나 孤兒院의 役割을 하여 왔다고 보아 過言은 아닐 것이다.

元來 그러케 豊富한 紙面은 아니엇지만 四五年乃至 六七年 前에 生産된 것을

現在와 比較하여 본다면 此 所謂 今昔之感이 잇서야 할 터인데 五六年인 옛날 그대로 크지를 못한 것을 보면 이 무슨 짜담인지 모르겠다. 이는 보견대 그 當時 作品을 發表하든 이들은 影子를 차져 볼 수가 업다(勿論 왼통 그러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結局 우리 育兒所는 늘 새 어린애만 길러오고 있다. 거기에는 생활에 定着性이 업서 늘 浮動的인 因果이기도 할 것이오 쯤 어쩐 이는 自己完成을 썩하고자 凡作 濫發主義를 버리고 慎重을 期하는 研究家도 잇겟스나 그러치도 안타면 이는 早老症에 걸린 所以라고 아니 볼 수 업다.

여기에 이 原因을 考究할 새 生活의 浮動性이라면 이는 『沒有法子』라는 無氣力한 判定을 내릴 수 잇는 일이고 쯤 自己完成을 目的하는 所以라면 이는 將來의 眞正한 滿洲朝鮮文壇의 빛나는 活躍을 爲하여 크게 期待하여 조켓스나 後者인 早老症에 걸려 短命한 데서 基因이 잇다면 이는 長太息을 禁치 못할 것이다. 이와 가튼 混沌한 滿洲朝鮮文學에 그래도 自慰를 주는 것은 今年度 滿鮮日報의 新春文藝에 當選된 詩며 兒童文學은 朝鮮 內 諸新聞의 것에 比 하여 別 遜色이 업는 優秀作임과 쯤는 滿洲文學人들이 朝鮮에서 當選圈 內에 드러잇는 點에서 將來 이들 文學人이 眞摯한 態도와 熱誠잇는 努力으로 研究活動함으로써 燦然한 明日의 文學史는 典範될 것이다.

큰일 哈爾濱에서 在滿朝鮮人 作品集을 刊行코자 하는 意圖가 엇보이는데 이는 일즉이 보지 못한 一大盛事가 아닐 수 업서 衷心으로 當該 事業家에게 敬尊을 表하는 바이나 筆者의 不平은 廣告에서 본 바 作品을 보낼 새 出版費를 보내라는 것과 된 作品 안 된 作品 云云 등이 적지 안케 脾胃에 거슬렀다. 文化人으로 文化事業을 할 새 原稿料는 못주더라도 出版費를 보내라는 것은 그래도 算盤의 採算上이라고 보아 容惑無怪라 하겟지만 된 作品 안 된 作品이란 것은 言語道斷이 아닐 수 업다. 文學을 純全한 商品으로서만 取扱하라는 意圖에 反感인 同時에 商品이면 商品으로서 價値 잇는 商品이여야 할진대 안 된 作品을 出版費만 보낸다고 取錄하면 該 商品이 商品으로서 完璧을 期할 수 잇는가. 甚히 疑心된다. 老婆心에서 바라건대 草創期에 잇는 우리의 文學을 成長시키는데 ○○코자 할진데 더 쯤 眞實한 襟度와 雅量잇는 態度로써 이 事業에 着手하여 주었스면 한다. 스트로 이

곳 모—든 文學人들의 熱心있는 努力活動을 期待하며 우리의 失敗의 原因인 忍耐性的 缺陷에서 生 하는 凡事에 龍頭蛇尾가 되지 말도록 彼我が 다가티 盟誓하기를 바라고 ○難○○의 愚見羅列을 謝하며 擱筆한다.

(筆者는 本社 記者)

滿洲朝鮮人文學建設新提唱(7) — 1940.1.20.

農民文學의 方向으로(上) — 金貴

아즉도 한 사람의 文人으로 自處할 수 있는 그런 距離와는 먼 基點에서 발더듬하고 있는 未完成의 文學徒인 나를 보고 이런 어려운 물음을 주신 編輯者의 心理를 打診기에 甚히 어려운 點이 만었다.

그러나 已往에 맞겨 주신 그 好意(?) 그저—그런 것에 報答하려는 人事만이라도 채려야 한다는 것을 느끼었다.

첫재 滿洲란 이 地域을 생각하여 볼 것 가트면 우리 겨레와는 歷史적으로 長久한 人연을 매지은 쌍이다.

그 언제부터인지 世代를 짜질 것도 업시 政治的 不平으로 國禁의 越江罪를 무릅쓰고 이 쌍으로 건너와 살든 이도 잇섯스며 쏘는 生活의 길을 찾는 食口들도 江을 넘어 넓은 荒蕪地를 開拓하여 온 것이다.

더구나 張學良의 東北政權이 滿洲事變으로 因하여 敗退한 後는 滿洲國이 새로운 建設을 썬메고 着着 近代의 國家의 面貌를 가추게 된 오늘날에는 우리 겨레의 移民은 百萬이 넘어 農村 혹은 都市로 흐터져 새로운 삶을 營為하고 있다.

그리고 滿洲國의 情勢로 보면 朝鮮의 開拓民은 압흐로 이 쌍에 幾百萬을 包擴

하여 드립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與亞 日本의 大陸政策에 잇서서도 滿洲國은 朝鮮과 세어어노을려야 노을 수 업는 地理的 環境도 그러러니와 滿洲國의 建國精神과 및 그 發展 段階로 보드래도 政治的 經濟的 쏘는 文化的으로 特色 잇는 새로운 民族協和의 形態를 가추어 나아가므로 여기에 우리도 그러한 諸形態 가운데 位置하여 잇는 것이다.

그러한 立場에 서서 볼 것 가트면 朝鮮人만을 主體로 한 卽 朝鮮文化(文學)의 樹立이라 하는 것에 對하여는 이션 難解할 一點이 잇는 것도 가티 思惟되어지지만 그러나 唯獨 朝鮮文學은 朝鮮 사람만으로 만드러진 文學을 일커름이라면 구태어 滿洲란 地域的 意義를 부칠 理由가 업슬까 한다.

그럼으로 滿洲國에서 生成하려는 朝鮮文學은 卽 諸民族協和의 精神을 根幹으로 하여 超民族的인 特異의 滿洲國民文學의 樹立에 究極 目的이 잇슬 것을 主張하고 십다.

그럼으로 國民文學을 歸納的으로 分析하면 一民族의 獨自的인(自國의 言語로) 文學을 單位로 하여 全體의 國民文學은 構成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朝鮮文學이 存在할 수 잇스면서 그것이 쏘한 國民文學으로 불려지는 理由가 여기에 잇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으로는 滿洲朝鮮人의 文學은 朝鮮 內地文學의 延長도 되지 못하며 模倣도 아님을 말하고 십다.

이러케 보아 오면 滿洲朝鮮人 文學은 그 表現의 主體를 朝鮮人 生活에만 머무러 잇지 못할 것이며 諸構成 民族의 全般 生活에 向하여 움즈기고 쏘한 建立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滿洲는 이즉까지는 넓은 荒蕪地를 開拓하여 가는 農民이 全 人口의 最多數를 點하고 잇서 그 生産 方法이 原始的 農耕을 主로 삼는 情勢에 잇다고 본다.

그리고 쏘한 朝鮮의 自由開拓民 혹은 集團開拓民은 거개가 農村으로 가서 土地 開發에 從事하고 잇슴으로 이러한 部分的인 文學 對象으로서의 農民—더 나아가선 滿洲에 잇는 農民 全體의 主體의인 對象으로 積極的인 農民文學이 成立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大陸의인 雄大한 創造的 性格은 오로지 農民을 通하여 볼 수 있음으로 나는 이에 農民(흙)文學을 提唱하려 하는 者이다.

러면 흙의 文學을 取扱하는 데는 엇더한 方法으로 形象化시킬가 하는 것이 남은 問題일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滿洲 農民의 特異性を 觀察하여야 될 줄로 생각한다. 滿洲의 農村은 日本이나 朝鮮의 情勢처럼 個人的 土地點有로 因하여 얼크러진 地主 對 小作人의 生産面的 鬭爭이 그러케 惡化되야 있지 않는 點이다.

그러한 事實이 全혀 업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滿洲의 地域은 無邊한 曠野로서 지금도 未開墾의 處女地가 얼마던지 있고 사라서 農民은 原始的 生産方法으로도 人力만 자라면 얼마든지 收穫을 어들 수 잇는 것인 만큼 여기에 小作 爭議가 잇슬 리 업다.

더구나 滿洲國은 國策으로 個人的 土地 資本의 跋扈를 禁하고 잇서 土地 管理엔 政府의 特殊 會社로서 當케 하여 農民으로 하여금 漸次 自作農의 地位로 올려 노아 어선 形式의 理想農村을 建設하고자 努力하고 잇는 것이니 이런 特殊的인 것도 엇볼 수 잇는 것이다.

滿洲朝鮮人文學建設新提唱(8) — 1940.1.22.

國民文學으로부터 世界에 進出토록(下) — 金貴

이와 가치 滿洲의 農村은 여러 가지로 國家的 施設의 惠澤을 바다가며 農耕을 할 수 잇는 것으로 우리가 作品을 農村에서 取材한다면 從來의 農民文學에 對한 概念만론 眞實한 作品을 나아 노출 수 업고 그러므로 主體의 特異性を 理解하

여야 되겠스며 사라서 農民 生活의 生産 面으로만은 雄大한 大陸開拓의 精神을 表現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좀 더 大陸農民의 創造的 精神 말하자면 深刻한 人間의 精神의 모든 面을 分析하고 綜合하여 그것으로서 農民文學의 世界를 만드려야 할 것을 밋는 바이다.

그러려면 어서한 架空의 妖術도 물리치며 어서한 虛構도 드러눕치 말고 生新한 寫實主義 方法으로 典型的인 滿洲農民의 性格을 創造하여야만 할 것이다.

지금은 歐羅巴의 動亂 中에서 近代文明의 가장 참혹한 戰禍를 입어 무참히도 모든 人的文化를 불살러 버린 廢墟의 冢—랜드—그 나라의 農民의 얼굴과 숨결을 眞實하게 알려준 世界的 農民作家 『레이몬드』의 作 『農民』을 通하여 滿洲의 自然環境과도 恰似한 男性的인 雄大한 自然 속에서 農地의 흙과 사라가는 冢—랜드 農民의 그 情熱인 性格의 面을 굵게 緻密하게 表現한 것은 오즉 作者의 沈着한 눈과 그에 차르는 情熱로서 寫實主義 方法을 通하여 그려진 世界的 名作이였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滿洲의 農民文學도 그만큼 程度의 境地에 들어가지 안하면 안 될 것을 알고 自身도 그러려니와 이 仗의 文學人은 冊床머리에서 文學作品을 짜내지를 말고 좀 더 積極的인 意慾을 가지고 滿洲의 農民生活을 그리기 爲하여 坊坊曲曲으로 들어가 事實의 世界를 遍歷하여야 될 것을 말하여 둔다.

모름지기 滿洲에서 살며 滿洲에서 文學을 찾고저 하는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政治的 形態가 다른 어느 나라로도 追從할 수 업는 새로운 發展을 보여주는 마당 임을 意識하며 創造的 情熱을 얼마든지 發掘할 수 있는 그런 惠澤을 가진 것이니 가령 農民文學 하면 보담 더 長江流水와 갖흔 自由奔放한 飛躍으로써 가장 眞實하게 그 文學建設을 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非單 朝鮮文學이라고 일컫기보다 滿洲國의 國民文學으로서 世界에 進出할 만한 作品을 生産하여 그것이 朝鮮文學이며 同時에 滿洲의 國民文學임을 宣揚하여야 될 줄로 밋는다.

그리고 슌트로 滿洲의 朝鮮文學建設에 당할 實際의 文學人들의 움즈김에 대하

여 맺 마디 더 말하고 싶다.

아모리 조흔 滿洲의 文學的 背景을 가지고 있다 하드래도 背景을 舞臺로 하여 演出할 文學人의 바른 能力과 力量이 업다면 그 亦 살려갈 수는 업는 것이다.

그러므로 滿洲에 散在한 文學人(主로 滿鮮日報를 通하여 作品行動을 하고 있는 同人들)은 비록 文學作品의 技巧의 方面은 아즉 어선 水準에 오르지 못하였다 하드래도 文學을 당하는 그 情熱만은 이 나라의 性格과 가티 高度化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도로혀 나는 滿洲文學人의 이와 가튼 眞實한 態度를 높게 評價하며 所重이 여기는 者이다.

그것은 또한 압날의 偉大한 文學을 나아 줄 수 있는 무거운 希望이며 크다란 期待이다.

그리고 新興의 滿洲國에 사는 우리들의 자랑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와 가튼 文學에 對한 情熱을 作品行動에 옮겨 寫는데는 自家的 實踐 方法도 잇겠지만 그것보다도 滿洲國의 中心 都市인 新京에다 朝鮮人藝術協會 가튼 組織을 두고 그리고 地方에는 그 分會를 두어서 文學 同人의 一致協力을 꾀하며 中央에서 綜合文學 雜誌를 刊行하여 研究 發表를 하였스면 한다.

그리고 藝術協會엔 文學賞을 設置하여 優秀한 作品에는 이를 獎賞하여 作品 水準을 向上케 할 것이다.

또 그리고 現在까지 오즉 滿鮮日報 學藝面을 通하지 안흐면 發表할 機關이라곤 통 업는 것이다. 勿論 滿洲의 朝鮮人 文化를 위하여 만흔 曙光을 받들고 온 滿鮮日報는 압흐로도 滿洲의 朝鮮文學建設에 產婆 役을 하여 줄 것은 누구나 함께 밋고 잇는 바이지만 今後론 文學人의 養成을 위하여 最善의 努力을 다하여 주 잇스면 한다. 그리고 文學人으로 하여금 조흔 作品을 發表할 機會를 열어주고 原稿 注文을 督促하여 드릴 만한 誠意를 가지고서 善導하여 주기를 바란다.

(스르로 矜지도 머리도 업는 愚論을 草하고 文貴를 避한 感이 잇서 마음에 不安하다. 더구나 私見 투성이니 讀者 諸兄은 寬恕하여 주기 바란다.)

= 筆者는 小說家 圖們稅關 勤務

滿洲朝鮮人文學建設新提唱 (9) — 1940.1.23.

作家의 輩出과 讀者의 向上을 緊急動議 (上) — 朴榮濬

滿洲朝鮮人 文學의 必要性은 새삼스러히 論할 배 아니다. 오로지 그 成育이 잇
슬 뿐이다.

왜냐하면 滿洲가 一時的 居住地가 아니고 畵를 못고 살 永住地가 되엿기 畵문
이다.

卽 生活의 根據가 잇는 곳에 生活의 反映이 업슬 수 업스며 峙라 마음의 表象
이 업슬 수 업다. 音樂이나 舞蹈 等의 起源을 歷史的으로 볼 畵 滿洲朝鮮人에게도
文學뿐 아니라 온갖 藝術의 必然의 發生이 잇슴 직하다.

그러나 自然發生의 藝術이 現代人이 바랄 수 업는 原始的 形態로 나타난다면
그는 되려 時代의 恥辱이 될 수도 잇게 된다.

可能한 範圍의 藝術 또한 업지 못할 藝術을 부르지즘이 가장 賢明한 急先務라
생각한다. 가튼 民族이 가튼 言語를 使用하며 두 가지 文學을 가질 수 잇느냐가
問題일 것이나 이것은 滿洲朝鮮人 文學의 概念을 밝힐 畵 自然 解決될 것이라 밋
는다.

아직 研究가 밋지 못하야 이에 對해서는 言及치 못하지만 위에 말한 理由에서
우리가 滿洲朝鮮人 文學의 提唱을 하고 이를 育生식하기에 邁進할 것에는 躊躇할
배 업스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提唱하는 文學에 課題된 바 實로 만다. 一種의 初創期的 運動이라고도
볼 수 잇는 새 文學의 進展에는 畵힘업는 研究와 批判이 잇서야 될 줄 알지만

于先 現段階에 있어서 着眼해야 될 點을 생각키우는 대로 적으려 한다.

文學을 客觀的으로 볼 새 作家와 讀者를 除外할 수 없다.

作家 엮는 文學이 全히 엮스란 법이야 엮겟지만 口傳民謠 以外에 그리한 것을 發見할 수 없다.

卽 作家가 잇는 뒤에 文學을 바렐 수가 잇다는 것이다. 붓 엮는 畫家가 그림을 그릴 수 엮는 것가치 作家 엮시 文學을 기다리린다는 것은 無謀하기 짝이 엮는 일일 게다.

勿論 滿洲에 온 朝鮮人 作家가 全히 엮다고는 할 수 엮스나 그들의 貢獻은 極少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朝鮮文壇에서도 滿洲를 쓰라고 하는 傾向이 보이어나 그 亦 極 微微한 일이다.

李箕永 氏의 『大地의 아들』의 成果가 엮던지 未知數이지만 要컨대 滿洲 內의 作家를 輩出시키지 안을 수 엮는데 現在의 가장 큰 宿題가 아닐가 한다.

無邊한 滿洲에는 無限한 素材가 숨어 잇다. 『静かなドン』을 構成할만한 것도 잇슬 것이고 『大地』를 만들만한 民族의 이야기도 잇슬 것이다.

偉大한 作品일수록 具象的이어야 한다.

作家의 才氣에 依함도 만겟지만 李箕永 氏가 『大地의 아들』을 執筆하기 爲하야 二十 日 間 期限의 旅行券을 가지고 滿洲를 視察하고 도라갏다는 말에는 不安을 늦기지 안을 수 엮섯다. 二十 日 동안 보고 드른 것이 大作의 胎兒가 된다면 危險性이 엮슬 수 엮기 새문이다.

말하자면 滿洲의 文學을 씨메고 나설 新進作家의 輩出을 期待하는 바이다.

中堅作家의 地位에 잇는 이가 썩어나옴은 勿論 조타. 그러나 始作되는 일에는 基礎를 든든히 함이 可하리라 밋는다.

새 作家를 만들자는 소리가 노파야 할 것이고 한번 나선 作家에게는 그 뒤를 밀어줄 만한 力量이 準備되여야 할 게다. 朝鮮人 文壇에서는 每年 新進 作家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들을 길러낼 雅量이 엮시 失敗를 맞보고 잇는 現狀이라고 말할 수 잇다.

特志의 文學賞을 設定하고 新進 出馬의 期會를 줌도 조흐려니와 이미 잇는 機

關의 飛躍的 實踐을 기다릴 수도 있다.

한번 나온 作家를 길러내는데는 勿論 作家 自身에도 달린 問題이지만 言論機關의 責任도 重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作家가 있다면 그를 理解하고 讀者層이 잇서야 할 것이다.

仔細히 알 수 업는 일이지만 現在의 讀者層은 低級한 곳에서 踏步하고 잇지 안나 생각키운다.

讀者의 高揚 問題는 文學의 發展과 더부러 할 길이지만 滿洲에는 讀者를 向上 식힐 準備가 너무나 적은 것 갓타.

이제까지 生活이 그랫거니와 이제부터는 跳避的 또는 無關主義의 生活이 清算 되어가는 同時 社會的 文化的 視野가 넓어지는 것이 事實임에 紗라 讀者 自身으로써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업는 欲求를 가지게 될 것이다.

讀者를 把握한다는 卽 文化的 教養의 積極的 活動이 展開되지 안어서는 안 될 줄로 안다.

文學을 써난 一般 文化에도 必要한 問題이라 생각한다. 바다가 업는 航海를 바랄 수 업는 바와 가티 讀者가 업는 作家의 孤寂은 말할 배도 아닐 겐다.

이는 文學人 뿐아니라 知識人의 다가티 생각할 問題이리라.

(寫眞은 朴榮濬 氏)

滿洲朝鮮人文學建設新提唱 (10) — 1940.1.24.

現段階의 眞實한 批評과 發表機關의 期待 (下) — 朴榮濬

作品이 먼저냐 批評이 먼저냐 하는 根本論을 攄낼 必要는 업지만 作品과 더부

러 批判을 이저서는 안 될 줄 안다.

이저서 안 된다는 것보다 作品이 잇서야 함과 同時 批評이 잇서야 된다.

作品 以前에 먼저 그 指向을 세울 必要도 있다.

이는 一朝一夕에 바랄 수 업는 重要 問題이나 바라는 文學活動과 더불어 步調를 갖치하여야 할 줄 안다. 批評文學이라 하여 어떤 定論이나 連繫의 基準을 세우라고 서둘 必要도 업스러니와 發芽하려는 文學을 挫折시킬 危險한 것이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타고 해서 作家에 隨從하라는 것이 아니라 朝鮮文壇과 가티 作家 時 批評家의 低俗한 對立을 禁한다는 것이다.

한 作品이 나온다면 그것을 한 조흔 미끼로 料理해버리라는 態度를 가진 것이 文壇에 가장 嫌嫌한 일일 게다.

滿洲文學을 그 發展하려는 時期로 보아서나 쏘는 期待하려는 作家로 보아서나 多分히 政治的 手段을 가진 評家를 바랄 줄 안다. 이는 專門的 評家를 말하는 것이나 文學人 自體의 總意를 모으고 反省하는 態度를 가짐도 조흐리라 생각한다.

作家가 評家의 批評을 기다림이 常識처럼 되어잇지만 作家들이 서로 批判과 自省으로 文學을 促成식힐 수도 잇는 것이다.

도로혀 評家와 作家를 區劃 하려는데서 아롬답지 못한 障礙가 이어나기 쉽기도 하다.

左右間 滿洲文學의 烽火가 될 評論이 必要하며 사라 그는 참으로 滿洲文學을 이르고 사랑하려고 하는 가장 貴한 것이 되어지기를 願望한다.

말하자면 批評과 作品은 夫婦가티 한 家庭을 維持 發展시키려는 眞實한 態度를 가져야 할 것이다. 어느 고장에서나 그런 것을 바랄 것이나 現段階에선 滿洲에서는 가장 切實히 要望하는 바가 될 게다.

反對로 抽象的이라고 할 수도 잇슬는지 모르나 우리의 目標을 向해 나가는 眞實된 길이라면 非難할 必要도 업슬 일이다.

다음에는 發表機關이 自然 問題될 것이다. 滿洲에는 아직 同人誌 하나가 업스며 文學的 色彩를 띤 雜誌의 出現을 볼 수 업다.

作品과 批評 以前의 具體的 問題 일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發表機關의 缺乏으로 오는 衰退를 朝鮮文壇이 어선 時期에 經驗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직 그러한 쓴맛을 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滿洲에서 亦是 가터 늦기지 안힐 수 업는 不幸이 아닐는지 모르겠다.

文學的 雰圍氣 如何에 싸를 問題일는지 모르지만 미리부터 걱정 아니할 수 업는 일이다. 오로지 文學뿐 아니라 一般 文化的 立場에서 볼 亦 亦 잇서지기를 바라게 된다.

滿洲에서도 文化的 覺醒과 그 促成을 게을리할 수 업슬 이지음 文化雜誌 한 卷 업다는 것은 文化人으로의 움직임이 얼마나 적다는 것을 能히 알 수 잇슴직 하다.

어선 機關의 機關紙도 그 數가 極少한 것이지만 民間의 부르지음을 나타낼만한 것이 企待된다.

滿洲에서의 우리 生活은 物質的 精神的 土臺가 구더져 간다. 그리하면 滿洲國民으로써의 精神的 마음도 기름지게 해야 할 것이라 밋는다.

싼 이야기 갖지만 滿洲의 朝鮮人도 이제는 손님 가튼 觀念을 업새하고 主人다운 行動을 가져야 하겠다. 여기에 朝鮮人 問題가 解決될 것이며 文化的 昂揚도 잇슬 것이다.

文人은 가난과 더부러 한다는 俗話가 잇지만 가난한 文人은 誠과 熱을 가지고 이 일에 加擔하여써 金錢에 代한다면 緊急한 發表 問題도 落着되지 안을까 하는 希望과 漠然한 信念을 가지게 된다.

말하자면 文化人 全體의 總動議와 協力이 바래지는 것이다.

一部分에서만 셔들어댄뎡자 解決되지 못할 것은 모든 社會運動과 꼭갓다.

以上에 말한 것을 總括한다면 結局 滿洲朝鮮人 文學를 建設하러 함에는 文化人이 다가터 손을 잡고 한길을 짓는데 비로소 曙光이 잇슬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에는 文學人의 組織體도 必要할 것이오 朝鮮文壇과의 關係도 論議되어야 할 것이지만 以上으로 擱筆하러 한다. 悤흐로 昭和 十五年 첫달에 이런 提唱을 提示하여 새로운 氣勢를 만들랴고 하는 滿鮮日報社에 謝意를 表하며 將來도 悤힘 업는 努力이 잇서지기 바라는 바이다.

(筆者는 小說家 協和會 磐石縣 本部 勤務)

滿洲朝鮮人文學建設新提唱 (12)³⁾ — 1940.1.26.

文學의 精神을 創定하고 搖籃을 만들어 놓차 (下) — 金春崗

둘째는 產婆役이니 우리 旣成文壇의 過去를 回顧컨대 아모리 健全한 創作性으로 作品行動에 나오는 文學人이 있다 하야도 거기 產婆役이 업시는 그가 文壇人으로 出世할 수도 업스며 그러키 새문에 自爆自棄 하야씨 文壇과 絶緣狀을 쓰고 마는 것이 常例와 가티 되어 잇섯다.

그러나 筆者가 말하려는 產婆의 役割은 이런 意味에서가 아니라 수수씩기와 가튼 우리 生活 우에 세워질 文學塔은 果然 엇더케 만드러야 할까? 다시 말하면 故郷을 그리워하는 젊은이는 鄉愁를 읊픈 것이고 明日의 大陸을 期待하는 作家는 希望에 찬 노래를 부를 것이니 이 移民이라는 特殊한 環境의 多角的 感情으로 各樣各色的의 母體를 가지게 될 未來의 우리 文學을 一元의 方法으로 生産시킨 產婆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勿論 거기는 故郷의 그리운 山川도 나올 수 잇고 사리진 粉伊의 초마자락도 나타날 것이며 애타하는 어버이 心情도 그리어 볼 것이나 그러나 이것을 한군데 모하 노흐면 相通되는 “不滅의 씨”를 가질 수 잇도록 하야야만 우리 文學은 우리 生活의 理想이 될 수 잇스며 그리고라야만 使命을 建設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 “不滅의 씨”를 만들 수 잇는 產婆가 必要하다는 말이나 區區히 大陸生活의 原因을 溯考함으로 消極的 理由를 固執하는 것보다 來日의 우리를 明朝케 하기

3) 滿洲朝鮮人 文學建設新提唱 (11)은 1940년 1월 25일 자 『만선일보』조간이 결호인 까닭에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爲한 積極的 行動으로 나가서 在滿朝鮮人의 生活이 어느 다른 民族보다도 退步하지 안할 수 있는 健全한 境域으로 드리하는데 우리 文學이 躑躅이 될 수 있는 水準으로 이끄러져야겠는데 滿洲朝鮮文學運動에는 이것이 缺乏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筆者는 무엇보다도 “우리 文學의 精神” 創定이 急先務라고 主張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러케 辛酸한 文學運動을 漠然하게나마 進展시키려면 자고 일고 할 수 있는 搖籃을 만드려야 하겠다.

오늘까지의 本報가 主로 그 役割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스나 아직도 이것이 部分的 事實이요 全體的이라고 볼 수 업스니 이제부터 우리는 在滿鮮系 諸勢力을 總動員하여 이 搖籃을 만들기에 努力하여야겠다.

協和會의 鮮系工作도 이 文學運動을 輕視치 마려야겠고 國家大系인 開拓事業도 이 文學運動을 併行시킴으로 우리 生活의 理想이 洗鍊되고 우리 社會의 秩序가 바로 잡히도록 하자—

—妄言多謝—

(筆者는 本社 北滿支社 記者)

滿洲朝鮮人文學建設新提唱 (13) — 1940.1.27.

文學 開拓의 設計圖 — 李光賢

文學은 文學人의 情熱과 꾸준한 努力을 土臺로 하고 이의 四壁을 이룰 周圍의 사람들이 文學을 慾求하는 데서 비로소 生産되고 育成될 것이다. 情熱과 努力이

업는 文學建設을 企圖한다면 이는 한갓 부질업슨 꿈이 아니면 砂上에 樓閣을 세우려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어리석은 計劃일 것이며 빗조코 훌륭한 하나의 空論에서 더지내지 못할 것이다.

文學의 退潮도 아니요 入潮도 아닌 處女地 그대로인 이땅에 朝鮮文學을 建設하건 滿洲文學을 創設하건 그것은 오로지 文學을 文學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 쓰거운 『熱』과 『力』(努力)이 擘發하는 데서만 우리가 期待하는 文學이 이를 것이며 또한 成長할 것이다.

不幸한 것은 猥濫된 말이나마 이 땅에 過去나 現在에 있어서 그러한 『熱』과 『力』을 가진 文學人이 드물었고 또 文學을 사랑하는 사람이 원체 드물었기 때문에 相當히 長久한 移住史를 가지면서도 오늘의 이땅에 우리의 健實한 文學만은 아직껏 不妊症으로 一貫해 온 것이다.

過去에 있어서 우리의 文化 中心地로 되어있든 間島 龍井 특히 이미 發刊된 間島日報를 母體로 하여 文學의 胎氣가 보인 적도 잇었고 그 後 新京의 滿蒙日報時代를 거쳐 滿鮮日報로 改題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를 活舞臺로 新進無名의 文學人들이 不斷한 文學行動을 하였으나 아직 文壇이란 것을 形成치 못하고 그 圈外에서 設計圖만을 되프리고 있는 狀態에 노혀있다. 이러한 文學의 荒蕪地를 어찌케 開拓하며 어찌케 培養하며 어찌케 育成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생각만 하여도 까마아득 하고 憂鬱症이 복바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이 땅에 在住하는 우리에게 奮發心을 일으키게 하고 커다 希望도 주고 있다.

그러면 나는 長舌을 避하고 이 땅에 어찌한 方法 乃至 手段으로 우리 文學을 建設할까? 하는데 對하여 몇 마디 列舉하려 한다.

1. 이 땅에 文學人들의 自覺 喚起와 情熱 努力을 갖게 하도록 힘쓸 것.(手段은 編輯子에 있습니다.)

2. 이 땅의 文學人 或은 朝鮮 內 文人들과 항상 有機的 連繫를 取하여 文學運動에 協力을 바랄 것입니다.

3. 文學人을 어찌한 形式으로든지 優遇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新進, 無名을 不問하고 掲載 作品 특히 佳作에는 薄謝를 進呈하거나 葉書 한 장으로라도 謝意를

表하는 것이 조흘까합니다.

4. 한해에 두세 번式 作品을懸賞募集하여文學人의 作意를 發動시켜 주는 것도 조흘리라고 맞습니다.

5. 寄稿者의 作品을 尊重히 해야 될 수 잇는대로 실어주어 꾸준히 붓을 들게 해주는 것도 조켓습니다. 休紙통에만 쓸어 넣는 苛酷한 處分을 하면 자러나는文學心을 剪定해 주는 셈이 되니까요.

6. 各 都市를 中心하고文學運動의 霧圍氣를 釀成해 주었스면 하나 그 具體 方法까지는 모르켓스니 編輯子의 名案은 업스신지요.

7. 滿洲라는 地域的 限界를 두지 말고 朝鮮 內文學과의 交流乃至 移入을 伺할 것입니다.

8. 滿鮮日報 學藝面으로 하여금文學運動의 運動場으로 그 大部分을 提供할 것입니다.

以外에도 要望이 만흐나 以上 列舉한 것만 實踐하더라도文學建設에 한 도움이 되지 안흘까합니다.

(以上 八個 條文은 編輯子에 對한 瞭望입니다.)

다음은文學人에 要望합니다.

1. 情熱과 努力을 버리지 말 것입니다.
2. 항상文學徒라는 謙遜한 態度로 나갈 것입니다.
3. 되지 못한 小說 하나 詩 몇 篇 發表해 노코 文士然하는 態度를 取하는 사람이 업지 안히 잇는데 이것은 禁物이니 삼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百年 文靑으로서 作品生産에 邁進할 것입니다.

4. 文壇의 한 戒言으로 되어잇는 早老症을 避함시다.

5. 滿鮮日報가 養成해 노흔 新人들은 擧皆가 朝鮮 中央文壇으로 進出을 企圖코 該報를 돌보지 안는 傾向이 잇는데 이래서는 百年을 가나 千年을 가나 이 쌍에 文壇이란 것이 成立될 수 업스니 이 쌍에 우리文學乃至 文壇을 創設하려는 自覺이 잇는 文人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6. 이 쌍의文學人들은文學의 開拓 挺身隊가 되어 우리의文學 開拓에로 꾸준

히 努力합시다.

7. 滿鮮日報 學藝面은 文學的 水準이 나저서 投稿를 못하겠다는 이런 주제넘고 아니꼬운 文學人도 있는 모양인데 이 利己의인 無熱意한 생각은 버려주었으면 합니다.

8. 이 쌍에 우리 文學을 노피는 것도 오직 文學을 文學하는 사람의 自覺과 情熱과 努力에 있스니 文學人들은 누구나 다 힘을 뭉쳐서 이 쌍에 우리 文壇을 築城토록 努力합시다.(이박계도 여러 가지 있스나 위선 以上 八個 條文만 직혀주어도 우리 文學建設은 그리 어려운 問題가 아니라고 맞습니다.)

滿洲朝鮮人文學建設新提唱 (13)⁴⁾ — 1940.1.29.

文筆家の 待遇부터 — 玄卿駿

百萬을 넘는 朝鮮人 部隊가 明日의 王道樂土를 目標하고 五族協和에 盡力하는 大滿洲帝國에 있어서 그 生活의 反映이자 同時에 그 生活을 向上 進展시킨다는 文學의 存在는 너므도 微弱하다.

아니 全無하다고 해도 지나친 過言은 아닐 것이다. 過去의 어찌한 나라의 歷史를 보더라도 文學은 恒常 그 나라의 生活과 歷史와 不可分離의 因緣을 가지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이것은 植民地의 移民文學을 보더라도 잘 알고 있는 儼然한 事實이다.

여기에 비추어 본다면 참말 滿洲朝鮮人 文壇에게는 아직도 生活이 엷었다고도 할 수 있다. 生活이 엷는 곳에 文學이 엷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학의 有無

4) 앞의 논설과 동일하게 '13'으로 적혀있으나, '14'의 오기로 보인다.

로 生活의 有無도 云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케 말하면 應當 反駁하여
올 者가 잇슬지 몰을 것이고 事實 나 亦 反駁하여 오기를 苦待한다만 슬푸게도
엍스리라는 것을 나는 斷定한다.

웨그러나 하면 滿洲에 온 朝鮮人치고 眞情으로 明日을 바라며 今日을 싸워나가
는 뜻잇는 者가 果然 몇치나 되는가?

空中에 쓴 蜃氣樓만 바라보며 一攫千金을 꿈꾸는 그들은 全部가 不正한 썩로
—카—의 무리들이라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그럼으로 그러한 무리들에게 正當한 生活이 잇슬 理는 萬舞한 일이 아닌가?
이에서 더 暗澹한 일이 어데 잇는가?

여기에서 뜻잇는 者들은 비로소 그들의 將來를 憂慮하기 始作한 것이고 百萬
同胞의 生活 改革과 善導에 애를 쓰기 始作한 것이다.

사라서 文學이란 것도 비로써 胚胎하기 始作하여서 文學建設 云云도 論議케 된
것이다.

그러나 文學에 對한 認識은 너므도 原始的이다.

所謂 有志란 그들도 文學에는 全然 常識이 업다.

이러한 속에서 오로지 朝鮮人の 生活과 文化에 對하여서 草創期부터 孤軍奮鬪
하여 온 것은 滿鮮日報 썩이다. 朝鮮人은 些少한 失手에도 眞情으로 憂慮한 者는
滿鮮日報엿고 貴重한 紙面을 조곰도 애김업시 朝鮮文學을 爲하야 提供하여 준 것
도 滿鮮日報엿다.

事實 滿鮮日報가 엍섯다면 滿洲에 잇서서 滿洲朝鮮文學建設 云云이란 아직도
아득한 未來의 일이라고 우리는 躊躇함 업시 말할 수가 잇다.

그 誠意와 情熱에 依하여 滿洲에서는 벌써 優秀한 新人들을 輩出식혔다는 것은
世人의 周知하는 바가 아니냐?

그中에서도 金明奎 氏라던지 金昌傑 氏라던지 金貴 氏 等은 가장 前途有望한
분들이라고 生覺한다. 氏들의 文學이야말로 明日의 滿洲朝鮮文學의 썩러한 가장
光輝잇는 曙光임에 틀림업슬 것이다. 所謂 朝鮮文壇에서 明星들이라고 自讚하며
文學을 한 붓 作亂으로 才弄하는 그들과는 儼然하게 體重이 달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問題되는 것은 作家들의 生活 保障이다. 이것은 朝鮮서는 벌써 盛히 問題된 것이지만 滿洲에서는 아직 生覺도 못하여 본 問題다. 作品이란 作家들의 情熱로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生活의 堡障이 없다면 그 情熱이란 未久에 冷却되는 것이다.

雨後竹筍가티 簇出하는 移民文學의 優秀한 先驅者들을 위한다기보담 그들의 兩肩에 무겁게 질머지운 明日의 滿洲朝鮮文學을 爲하여 그들의 生活를 保障하여 줄 具體的 方策!

이것이 가장 緊要하고도 緊要한 問題라고 생각한다. 그 具體的 方策이란 것은 筆者 亦是 여기에서 簡單히 云謂할 수가 없다.

만은 眞實로 朝鮮人의 生活를 憂慮하고 그들의 文化를 위하여 努力하는 有志들 이라면 그 文化 部隊 속에 儼然하게 끼여 애쓰는 作家들에게도 生活의 保障을 주어서 決코 文學을 副業的으로 하게 말어달라는 것을 여기에 긋게 말하여 둔다.

(筆者는 小說家, 圖們街 白鳳國民優級學校 勤務)

滿洲朝鮮人文學建設新提唱 (15) — 1940.1.30.

滿洲朝鮮文學의 性格과 特異性 (上) — 申曙野

滿洲에 잇서 朝鮮文學의 建設에 對한 眞摯한 提唱이 지금에 絕叫 擡頭되엿다는 것은 多少 晩時之嘆이 업지 안타. 散漫되여 이럿타 할 아무 基準도 업시 다만 不安定 가운데서 不振 狀態를 繼續하는 現實을 좀 더 時代的 及 社會的 要求에 適應한 健實하고도 有機的인 文學의 招來를 要望함은 必然한 反作用的 要求로써 提起된 問題가 안일 수 업다.

이에 今日과 가티 沈滯 不振한 文學의 打開策에 對하여 今番의 滿鮮日報社의 緊急 動議는 時期에 가장 適切한 劃時代的 企圖로써 滿腔의 敬意를 表하는 바이다.

于先 우리의 先祖가 長久한 歲月을 이 쌍에 와서 生을 營為하였다는 것은 筆者의 說明을 기다리지 안어도 既知의 事實임으로 煩說을 略하거나 그리 짧지 안흔 동안에 所謂 社會生活을 營為하였다는 集團으로써 社會生活의 反映인 精神文化 就中 文學이 보잘것없다는 것은 참으로 寒心한 事實이 안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過去의 不振한 文學의 諸原因을 嚴正히 批判 檢討하여 새 時代가 要求하는 健實한 文學의 樹立의 新機軸으로 昂揚하지 안으면 안 될 것이다.

滿洲國은 王道政治를 基礎로 한 民族協和의 國家인 만큼 이곳에는 一強力民族의 獨斷이 存在할 수 없으며 또한 過去의 米國의 建國 當時와 갓치 宗教的 信念下에 母國을 버리고 自由의 宗소리에 憧憬하여 달여온 民族도 더욱 母國 延長을 試驗하는 植民地도 안인 것이다. 어데까지던지 公明한 政治를 理想으로 한 獨立國으로 各 民族이 胥갓치 王道政治에 參劃하여 協和會 安居樂業의 新天地를 開拓할 歷史的 使命을 가진 前代未曾有의 國家에서 個別的으로 比단 朝鮮文學만을 分離하여 形成할 수 잇슬가?

그러면 첫재로 民族協和란 道義國家란 複合的으로 構成된 各 民族의 固有的 自主性을 無實히 拋棄하고 無機的으로 結合한 것을 意味함은 決코 안일 것으로 各 民族이 제각금 所有하고 잇는 固有的 傳統과 自主性을 尊敬하며 서로 理解하며 서로 民族의 苦痛을 除去하며 無差別하여 바야흐로 民族 間의 紐帶를 結聯식혀 同化하며 새로 和하여 分化 連綿하여 繼續하는 데서만 비로소 民族 間의 眞實한 協和는 永續性을 가질 것이다.

個人에게 個人心理가 存在함과 가티 各 民族에게도 그 民族 自體가 가지고 잇는 共通의 精神이 잇는 것으로 一定한 場所에서 定着하여 幾百千年 長久한 歲月을 두고 同一環境의 影響을 바더 固定된 民族精神은 固定되기까지는 相當히 長久한 歲月을 要하지만 一旦 固定된 뒤에는 容易히 變化되지 안는다. 그리하여 이 民族精神이 外部에 表現되는 것이 各 民族의 文化인 것이다.

即 民族이란 歷史的으로 또한 文化的으로 同一한 精神的 存在인 것을 서로 意識하는 人間의 總體로써 同一한 言語와 風俗을 가지고 있으나 반다시 同一한 國家의 所屬을 必要條件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마치 우리 東洋民族이란 東洋이란 一家族 內的 同一한 先祖의 血統을 바든 五兄弟로 東洋民族은 運命的으로 共存 關係에 있다는 所謂 大亞細亞主義의 理念 下에 彼我的 長處를 發揚하며 短處를 相戒하여 民族精神의 外的 表徵인 歷史的 遺傳의 蓄積—文物 制度를 自由 協調하는 데서만 眞實한 協和的 文化가 建設될 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卑近한 例를 들어 말하면 四絃이 音樂으로써의 價値는 一絃 一絃이 獨自的으로 特異한 音色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四絃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特異한 音色을 有効히 調和하는 데서만 비로소 音樂의 眞善美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滿洲朝鮮文學도 建國精神의 理念 下에서 自體가 가지고 있는 特異한 音色을 充分히 發揮하는 것이 結局 四絃의 理에 適合한 健實한 眞善美의 要素가 될 것으로 이것이 곧 우리 文學이 後天的으로 가지고 있는 性格인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滿洲에서 우리의 文學이 堂堂히 存在할 수 있으며 아울러 文壇을 形成할 수 있다는 것이다.

滿洲朝鮮人文學建設新提唱 (16) — 1940.1.31.

滿洲朝鮮文學의 性格과 特異性 (下) — 申曙野

둘째로 우리 文學은 先天的으로 또 하나의 性格을 가지고 있나니 이는 卅年間의 傳統 朝鮮文學의 遺産이 곳 그것으로 우리는 그 傳統을 엮던 角度와 方法으로 攝取 繼承할 것인가?

文學이란 옛 時代에 잇서 새 時代를 指示할 수는 있으나 時代와 時代의 階段을

超越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것은文學에는 그 時代의 現實性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니 우리는 우리의 傳統文學 遺産을 無批判的으로 排擊함도 너무 狹量한 非辯證法的 小兒病者며 さら 無條件으로 崇拜하며 陶醉되어 俗學的 歪曲된 繼承과 攝取方法도 또한 無意味한 努力에 不過하니 우리는 그 傳統的 文學 遺産의 繼承과 攝取의 基準에 잇서 迷妄을 超越하며 嚴然한 客觀的 基準과 科學的 ایده를 土臺로 하는 데서만 可能하다. 卽 歷史的인 社會的 照映의 가운데서 一切의 現實的 關係를 論理的 反省으로 體系化하는 創造的 批判的 繼承과 攝取라야 할 것이다.

왜 그리나하면 모든 時代의 文化는 언제나 그 前 時代에 蓄積된 文化의 繼承發展으로써 된 것이라는 意味에서 現代文化는 近代文化의 發展을 包含한 一切의 歷史的 文化發展의 總決算 우에서 生成 發展된 것이다. 또한 되며 있는 것은 勿論이다.

저 燦爛했던 希臘의 文化는 바비로니아 文化와 埃及 文化의 混流의 影響을 適當이 바더 建設된 것이며 또한 羅馬의 文化는 希臘文化의 直接的 繼承으로써 그 社會的 制限에 依하여 適當한 程度로 批判 加工해서 繼承하여 建設된 것이다.

그리고 近代 資本主義의 燦爛한 文化塔도 古代文化의 一切의 發展 蓄積 우에서 形成된 것으로 그것이 十四世紀로부터 十五世紀 間의 封建的 僧侶主義에 對한 必然的 反動으로써 開化期를 일운 것은 當然한 일이다.

換言하면 資本主義 文化는 文藝復興 運動으로써 出發되었스며 그리고 또한 그 人類 歷史에 큰 波素을 일으킨 文藝復興 運動도 말할 것 업시 古典의 批判的 復興 아니 그보다도 그 時代的 社會 條件에 制限을 바더가며 古典의 가장 生命 잇는 部分만을 繼承한 것으로 形成된 것이니 『人類的 歷史는 關係的으로 形成된다』는 것은 極히 尊重할 말이다.

이에 우리는 이 甞에서 우리 文學이 後天的으로 가지고 잇는 性格—自主性을 固執 發揚하며 아울러 先天的 性格—朝鮮의 文學 傳統을 批判的으로 繼承하여 兩者를 有機的으로 結合 抑揚식혀 渾然一體의 完全한 一個의 性格을 形成하여야 비로소 文學 製作의 眞實하고도 산 方法을 產出할 에네—지가 될 것이니 社會가 混亂한 狀態에 잇슬 甞에 文學이 安樂하고 社會가 貧弱과 不活潑에서 苦悶할 甞에

文學이 安樂한 社會觀을 가질 수 업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定○되어 있는 까닭에 이제 過去를 들추어 다시 論及하지 안커니와 今後 우리의 文學의 形態는 如上의 根本的 性格을 基準으로 할 때 大陸文學建設文學 及 移民文學 其外 었던 形態를 가출지는 現階段의 文學人의 眞摯한 檢討와 氣焰의 續出으로써 決定된 問題일 것이다.

그리고 滿洲朝鮮人의 生活的 根據가 太半數가 開拓民에 關한 것이라고 하여 滿洲朝鮮文學이 곳 農民文學이래야 된다는 것은 너무 狹量이며 近視眼의 偏見이 아닐 수 업스니 이제 다시 한 번 視野를 돌려 滿洲國의 現實을 大局의으로 觀察할 때 비단 農民文學만 存在한다는 理由는 成立될 수 업는 것이니 問題는 어디까지던지 文學人 自體의 教養 形態와 性格 素質 如何에 依하여선 滿洲文學으로써의 獨自의 性格을 體得 創造할 수도 잇스며 及其也에는 世界文壇에도 飛躍 發展할 것도 疑心치 안는다.

이에 우리는 現階段의 文學 發展의 具體的 方策을 主觀의으로는 作家의 活潑한 作業實踐行動에도 잇겠지만 客觀의으로는 中央文壇의 形成 및 新京에다 朝鮮人文藝協會를 設置하고 綜合文學雜誌도 發行하며 地方에는 그 分會을 두어 文學 同人의 一致協力과 研究發表를 하는 한便 文學賞도 設定하여 作品의 水準을 朝鮮乃至 世界의 水準에까지 昂揚케 하엿스면 한다.

또한 지금까지 滿洲 朝鮮文學의 溫床—滿鮮日報의 學藝面에 依存하지 안흐면 發表할 方途가 全無한 不遇한 現實에 今後에는 더욱 學藝面의 治外法權을 撤廢하여 學藝面의 隆盛하리만큼 紙面을 割愛해 주심과 함께 한便 附帶條件으로 滿洲內의 作品에 優先權을 주어 發表하며 朝鮮 方面에서 오는(先輩의 것은 例外) 習作期에 關한 諸作品을 第二○의으로 取扱하엿스면 한다.

筆者는 이 글을 草함에 잇서 個人의 功利的 慾求에서 나온 것은 決코아니며 더욱 우리의 論議라는 것은 우리 文化의 社會的 過程에서 늘 統一을 目的하고 真理를 세우기 爲해서 서로 不充分한 것을 論駁하며 態度의 不鮮明을 責하며 사라서 우리 文化를 社會的으로 建設함에만 잇스니 우리는 늘 이러케 統一될 때까지는 論議가 大端 必要한 것이다. 사라 歪曲된 바가 잇다면 汲버 勇敢히 取消하며 清算

하러 한다.

너무 內容이 抽象的이어서 愧恥하기 짝이 없으나 現階段에 잇서 이 글이 一助가 된다면 幸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筆者는 延吉商工公會 勤務)

滿洲朝鮮人文學建設新提唱 (17) — 1940.2.1.

滿洲에도 일즈기 朝鮮文學이 잇섯다 (上) — 安壽吉

筆者가 이 글을 쓸 새까지 『滿洲朝鮮文學建設의 新提唱』이라는 同一題下에 黃健 尹道赫 兩 氏의 글이 各各 三회에 亘하여 發表되었다. 黃 氏는 主로 滿洲朝鮮 人 文學의 性格을 規定하얏고 尹 氏는 主로 文學人의 取할 바 眞摯한 態度를 力說한 듯하다. 兩 氏의 論旨는 透徹하고 熱이 잇서 筆者는 一便 感激 一便 힘을 어덧다. 滿洲朝鮮 文學의 再建에 잇서 나도 한 개의 兵卒로서 犬馬의 役을 질 수 잇다면 幸으로 생각하겠고 平素의 所懷를 述하야 文學建設이란 大業에 他山의 石이 된다면 이 쏘한 우에 업는 기쁨이겟다.

나는 이 우에 特히 『滿洲朝鮮 文學의 再建』이라는 말을 썼고 거기에 傍點까지 찍었다. 滿洲에는 朝鮮文學이 잇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疲弊하여 죽은 거나 다름 업다. 그것을 다시 이르켜 세우자. 이것이 再建이다. 어찌케 이르켜 세우겟느냐? 이 具體的 方策을 述하려는 것이 筆者가 이 붓을 든 動機어니와 滿洲朝鮮 文學이 發生하여 今日까지 걸어온 자취를 살펴보기로 하겟다. 이러케 하는 것이 今後의 具體的인 方針을 세우는 데 잇서 根據가 되는 까닭이다.



朝鮮人の滿洲移住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成果를 맺고 있는 곳은 間島地方이다. 百萬 在滿朝鮮人中 六割의 人口를 占하고 있는 事實도 그러려니와 文化와 經濟에 있어서도 벌써 二十年前부터 이 地方은 基盤이 구더지서 ระเบียบ 틀을 잡게 되었으며 龍井을 中心으로 하여 明東(和龍)等地에는 二十年前부터 훌륭한 中等學校가 四五個 所가 잇섯고 한 學校에 二千餘名의 生徒까지 收容한 華麗 潑瀾한 時機가 잇섯는데 文學도 이 時機에 벌써 胚胎되었던 것이다. 東滿時報(間島日報의 前身) 民聲報의 두 新聞이 龍井에서 發刊되어 兩新聞 學藝面에는 詩, 小說, 隨筆, 評論等 當時 朝鮮에서 新文學의 文學的 活動이 活潑히 展開되던 때이라 或은 想涉의 亞流 或은 요한의 亞流 或은 東仁의 模倣者 또는 傾向派 作家로 自處하는 者 甚至於는 盧子泳의 讚美者까지 붓을 들고 나서게 되었고 論爭 가튼 것도 가삼 잇서 無秩序한 가운데에 量的으로는 華麗한 것이 잇섯다. 그러나 作者들은 거의가 學生(當時 學生은 모다 나히가 만혔다)들이라 作品을 匿名으로 發表하고 一生의 業으로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고 다만 一時的 創作慾의 滿足 또는 發表慾의 滿足을 채우는 것과 戀愛의 方便 등으로 써왔습므로 글 쓰는데 사랑하는 XX씨 에게— 등의 말이 달리는 수도 잇섯다. 文學의 基本的 工夫의 全無로 말미암아 닭은 쇠기요 등의 抒情詩나 童謠 가튼 것들 濫作 發表하였으나 規模가 크고 眞摯한 意味의 作品은 거의 업섯다 하여도 酷言은 아닐 것이다. 無論 이中에도 優秀한 사람이 업슨 것도 아니니 詩人 金東煥 氏는 當時 大成中學의 先生으로서 多情多感한 抒情詩人 또는 隨筆家이였섯으며 月城島人은 學生으로서 當時에 잇서는 民謠에 一家를 이루다시피 活動하였다.

그러나 이 時期에 잇서 이런 文學的 活動은 잇섯다고 하나 文壇이 形成되어 잇지 안었나니 그것은 以上에 述한 바와 가티 作者가 學生이였다는 것과 文學을 一生의 業으로 한 것이 아니고 一時的인 方便으로 일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文壇의 主流라든가 그러한 것이 잇섯을 理 업고 그 때의 文士(?)가 오늘날까지 文學의 徒로서 그 生命을 保存하여 오지 못한 것이며 近 卅年의 歷史를 갖고 잇으면서도 쭉쭉한 作品 하나 남겨 잇지 안었으며 文學的 乃至 文壇의 傳統이 全然 업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다가 事變 直後에 이르러는 混沌했던 思想的 社會가 한길로 모이게 됨을 따라 그러케 活潑하던 學藝面 作品活動이 沈潛하게 되었나니 그것은 從來의 作者들이 中學生들이었스나 成熟한 靑年들이었었고 文學에 對하여 그래도 一抹의 魅力은 늦길 수 있는 學生들이었든 것이 事變 後의 學生은 年齡도 어리고 學校 工夫를 眞實하게 하는 軌道에 오른 學生들인 까닭이라 볼 수 있다. 거기에 民聲報가 延邊晨報로 變하고 延邊晨報의 朝鮮文版이 廢刊됨을 따라 多鄉安永均 君 등이 多少 活動하였스나 그만 붓을 버리고 말고 남은 新聞은 間島日報 뿐이었었는데 學藝面에 注力치 안코 마치 이붓아들 가튼 存在와 恰似하게 取扱하였슴으로 거기 실리는 作品의 레벨은 餘地없이 低下되어 小學 六年이나 中學 二三年生の 作文 練習의 場所가 되지 안었다. 이 때 新京에 滿蒙日報가 發刊되었스나 亦是 이리타 할 活動의 舞臺를 文學人에게 提供치 아니하고 글 쓸 만한 사람들에 글씨를 쓴을 내지 안코 다만 投稿 들어오는 대로 이것을 실리어 間島日報와 한가지로 中學生 少年들의 作文 練習場에 지나지 안했다.



그러나 이 時期에 間島 地方에는 文學徒 乃至 인테리들이 만히 들어오게 되었나니 卽 各 中等學校의 格擗에 따라서 教員으로서 大學專門 出身이 東京 京城 등에서 가장 새로운 腦를 가지고 多數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 新銳의 學徒들은 文學的 活動을 하고 시프나 以上の 新聞들의 레벨의 低下에 情이 썰려져 熱誠分子가 모여 一週日에 一回式 會合하여 自作 作品을 朗讀 合評하고 그들은 大概가 英文學部 出身이라 英文學의 研究 등을 活潑히 하였다. 이것이 “北鄉會”의 始初다. 이 때의 同人은 當時 明信女校 教員이든 毛允淑 光明高女의 放曹善善 嚴武鉞 光明中學의 李周福 張酒源 恩眞의 朴贊彬 氏 外 諸氏들이다. 이 會에서 팜프렛 型的 雜誌 發刊을 計劃하였스나 그것을 實行에 옮기지 못한 채 同人들의 離龍 死亡 등으로 瓦解되고 말았다.

第一回(筆者는 이것을 第一回라 부르려 한다) 北鄉會의 瓦解의 原因은 同人들의 離龍 死亡 等에도 잇겠스나 그것보다도 同人들의 인테리가 가지는 優柔 不斷性에 原因이 있다고 본다. 卽 그들은 너무도 도련님의이고 너무 노피 處하야 學究

에 沒題한다는 美名미테 “쇼”를 써들고 “하—디”를 찾고 “부레이크”를 내세울 썬이고 現實에 則하여 作品行動을 한다든가 하는 堅實한 行爲가 업시 헛되이 理論만을 되뇌이고 그리고一家然한 데 失敗의 原因이 있다고 본다.

滿洲朝鮮人文學建設新提唱 (18) — 1940.2.2.

間島中心의 朝鮮文學 發展過程과 現段階 (中) — 安壽吉

이 反動으로 이리난 것이 第二回 北鄉會라 볼 수 있나니 卽 第一回 北鄉會 卞의 同人 中 李周福 氏는 千青松 君을 中心으로 學生들을 會集하여 亦是 作品의 朗讀 合評 等を 試하여 왔섯고 文藝講演會 等도 開催하였스며 등사판의 “北鄉”이라는 雜誌를 發行하게 되었섯다. 이리하여 觀念의 遊戯에 지나지 안헛든 北鄉會의 文學的 活動이라는 것이 實踐의 第一步를 내딛게 되었고 社會的으로 부르짖음을 發하게 되었섯다. 여기에 第二回 北鄉會의 發展的 意義가 잇섯다. 그러나 中學生 中心의 活動이 가지는 對外的 重量이라든가 또는 實力이라든가에 잇서 自然發展性이 制約되는 것은 自明한 일이며 이에 뜻을 함께한 社會人으로서의 文學徒의 糾合이 잇게 되었스니 이를 第三回의 北鄉會라 말할 수 잇겟다. 金國鎭 崔榮翰 崔順源 朴榮濬 姜亨求 千青松 等 諸氏 外에 筆者까지 合하여 그 卞의 同人들은 文學建設을 爲하여 發憤忘食의 熱情을 가지고 糾合되여 이들이 中心이 되고 中學生들○ 預備의 貯水池 格의 存在로 이들의 定期的 會合에 出席하여 이들의 自作品 合評 또는 各各 擔任의 研究課目(小說 詩 評論 等を 各各 마티 研究하여 會合에서 講義 비숫이 이야기하였다)에 對한 研究 發表 等を 듣고 月刊 雜誌를 購買하여 廻覽하면서 서로 공부하○다. 그리고 비로소 印刷化된 『北鄉』을 發刊하게 되었스며 이 第一號는 十頁의 “리—푸렛트” 型의 貧弱한 것이든 것이 二號 三號로

號를 짜라 冊으로 化하고 四號에 이르러는 제법 規格을 가춘 六十頁의 雜誌가 나오게 되었다. 그 사이에 文藝講演會도 開催하였으며 不充分한 龍井의 印刷所에서의 印行이라 同人들이 印刷所에 가서 職工들을 助力 激勵하여 校正은 勿論 機械까지 돌려주고 製本은 밤을 밝히어가면서 純全히 同人들의 손으로 되었다. 特히 金國鎮 千青松 李周福 諸氏의 熱誠에는 感淚가 흐르는 바 잇섯고 筆者도 犬馬의 役을하였다. 이리하여 겨우 間島에 잇서서의 朝鮮人 文學은 “北鄉”이라는 雜誌를 에워싸고 本格的으로 成長하려 하였고 이 세에야 비로소 文壇이라는 것이 엉터리를 잡으려고 하였섯다. 그리하여 北鄉 第五號를 發刊하려고 原稿까지 모혔스나 千青松 氏와 筆者의 離龍과 洽廢에 따르는 印刷의 支障과 同人들이 職業을 갖고 잇는 사람들이라는 弱點 等으로 間島 地方 巡迴 講演 等の 計劃도 實行치 못한 채 數年을 經過하였으며 其後 金, 李 兩氏도 離龍하게 되어 北鄉은 다시 世上에 나오지 못하게 되고 北鄉을 中心으로 하든 文學運動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第三回 北鄉會의 功은 以上 가치 眞摯한 意欲을 가진 文學人이 眞實하게 文學에 달려 부뵈는 것과 貧弱하나마 據城인 機關紙를 가짓다는 것과 社會的으로 多少의 부르지음을 發하였다는 것과 엉터리나마 文壇을 形成하였다는 것이라 할 수 잇겠스나 그것이 瓦解된 原因은 同人들이 職業을 갖고 잇서 한 곳에 모혀 잇지 못하고 서로 流離하였다는 것과 亦是 인테리의 自尊心과 優柔 不斷性으로 말미암은 龍頭蛇尾의 懦弱性의 所致라 볼 수 잇스며 文學을 一生의 業으로 하겠다고들 입으로는 부르지즈나 內心에 잇서 이것이 果然 男兒의 業일까 하는 懷疑 等으로 말미암아 職業을 짜라 서로 流離되어버린 後 그 職業의 奔忙을 克服치 못하고 그 대로 밀린 까닭이라고 볼 수 잇다.



以上에서 筆者는 間島를 中心으로 한 滿洲朝鮮人 文學의 過去를 北鄉會의 瓦解까지 보아왔다. 다시 눈을 다른 데 돌린다면 滿鮮日報 中心의 文學活動이라 하겠다. 滿鮮日報를 中心으로 한 文學活動이 그 形骸를 나타내인 것이 康德 五年度 新春文藝 懸賞募集부터라 보아 틀림이 업다면 이것은 北鄉會의 活動이 有耶無耶의 狀態에 싸진 以後의 일이니 本稿를 써나감에 잇서 時間的 連絡上 만흔 便利를

늦긴다.

卻說 五年度 懸賞에 金滢俊 氏의 小說 “江村 마을 사람들”이 當選된 것을 비롯하여 千靑松 氏 韓竹松 氏의 詩 其他 戲曲 等の 作品이 나타났으며 六年度 新春文藝에 金昌傑 洪龍澤 諸氏의 作品, 七年度에 亦是 洪龍澤, 金昌傑 氏 等の 作品과 金寓石 氏의 作品이 當選되었으며 康德 五年度에 協和文化部 懸賞에 金寒天 趙鳳寧 氏 等の 作品이 當選되야 當選 作家들의 數도 적지 아니하며 其他에 玄卿駿 氏와 朴榮濬 氏 等 朝鮮文壇에서도 活躍하는 分의 參加와 前 北鄉會 때의 同人 其 外 新聞社 內에 있는 몇 分, 橫步, 麗水 姜敬愛三 氏 가튼 先輩들을 습친다면 人的으로 적지 아니한 數를 가지고 잇슴에도 不拘하고 玄朴兩 氏의 長篇小說 外에 이러타 할 作品이 나타나지 아니한 대로 滿洲에 朝鮮文學의 存在를 疑心하리 만큼 沈滯의 狀態에 빠져잇는 現狀이다. 그러면 이가티 沈滯된 까닭은 무엇이나? 첫재로 筆者는 指導理論의 缺如, 둘째로 權威 잇는 發表機關이 없다는 것.

셋재로 同好者들이 各地에 흐터져 잇고 各自 職에 매여달려 잇슴으로 서로 連絡이 엷고 한곳에 맞날 수 업스며 사라서 彼此의 激勵와 親睦이 엷는 것. 이 까닭에 文學에 뜻을 갖고잇 스며 훌륭한 作品을 製作할 實力을 갖고 잇스면서도 孤獨을 느끼여 中途에 붓을 버리게 되는 것. 넷재로 唯一한 發表機關인 滿鮮日報에서 學藝面을 疎忽히 取扱하여 文學 同好者에게 積極으로 活動하여 글을 씨우지 아니하고 自然發生的으로 들어오는 投稿를 一時〇〇的으로 掲載하여 “레벨”의 低下된 것. 따라서 眞摯한 態度의 文學徒는 投稿를 忌避하는 傾向도 잇는 것. 다섯재로 作家 自身이 滿洲文壇을 蔑視 朝鮮文壇에의 出世의 大望을 품고 力作을 滿洲에서의 發表를 쓰리는 것. 여섯재로 先輩 大家들의 指導의 缺如 等 諸點이라 본다.

滿洲朝鮮人文學建設新提唱 (19) — 1940.2.3.

文壇建設의 具體案과 文學人의 迫力的 活動 (下) — 安壽吉

以上 과거 가티 滿洲朝鮮 文學이 微微하나마 거러 나온 길과 現段階의 發展 阻害의 諸原因을 筆者流로 보아왔거니와 이 沈滯 狀態를 除去할 方針은 如何한 것이겠느냐?

以下 實際에 即한 問題로서 數 條目에 亘하여 列舉하려 한다.

一, 指導理論의 確立

滿洲朝鮮人 文學의 性格 內容 方向 등을 規定하는 透徹하고도 具體性 있는 理論의 樹立은 刻下의 急務라 볼 수 있스니 評論을 專門으로 研究하는 文學人의 出現 또는 活潑한 活動을 期待하여 마지아니하는 바이다.

一, 權威 있는 發表機關 即 文學雜誌의 出現

前述한 바와 가티 滿洲에는 處處에 散在하여 있는 文學人들이 數로 보아도 적지 아니하며 工夫들을 하고 있스나 權威 있는 發表機關의 缺如로 말미암아 中途에 붓을 버린단다가 또는 積極인 精進을 拋棄하는 現狀임으로 文學 雜誌의 發刊의 必要性은 再言할 必要도 업다.

滿洲는 朝鮮이나 日本 內地와 달라서 文學人이 京城이나 東京 가티 中央인 新京에 모이여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만히 地方에 散在되어 있음으로 地方을 中心으로 하는 同人誌를 發行하는 것을 提案한다. 卽 間島를 中心으로 圖們이나 龍井에서 雜誌를 내고 南滿을 中心으로 奉天이나 安東에서 同人誌를 내어 同人誌를 中心으로 文學活動을 하는 同時에 文壇을 形成하여 나가야 될 것이며 中央에 잇서는 協和文化部가 主體가 되어 全滿的인 一大 文學誌를 發行하여 各地 散在의 文學人을 連絡 活動식히여 總體的인 權威 있는 文壇을 形成하여야 될 줄 안다. 이것이 總體的인 權威 있는 것이 아니고 新京 在住 數人의 것이 될 세에는 新京市의

一個 同人誌에 不過할 것이니 이 點을 特히 強調한다.

一, 滿鮮日報의 活躍을 期待

滿洲朝鮮人 文學建設에 잇서 滿鮮日報 學藝面의 役割이란 것은 한업시 큰 것이다. 現在에 잇서 唯一한 發表機關이며 確乎한 文壇이 形成되어 잇지 아니한 이 새이고 權威 잇는 文學誌가 發刊되어 잇지 아니한 이 時期에 잇서 滿鮮日報은 文學建設 文壇形成의 主導의 役割을 하여야 될 줄 안다. 더욱 地方에 散在한 文學人을 總體的으로 連絡 活動 하는 大任에 잇서는 同紙의 役割이 큼을 이루 해야될 수 업다. 이 點이 朝鮮 內의 大新聞이나 日本 內의 大新聞의 學藝面과 判異한 點이며 以上의 大新聞이 學藝面을 等閑視한다고 在滿朝鮮人의 精神的 訓練 道場이며 民族協和의 一分子로서 朝鮮人의 文化 向上의 指導의 機關인 滿鮮日報가 同一한 態度를 取하여서는 아니되는 理由이다. 그러나 從來의 同紙는 엇더하였느냐? 前述한 바와 가티 學藝面을 疏忽히 取扱하여 온 것이 事實이며 懸賞文藝 募集 外에는 積極的으로 文學人에게 글 씨우는 活動을 하지 아니하였스며 自然發生的 投稿를 嚴選치 안코 掲載하여 水準을 低下한 嫌이 업다고 할 수 업다. 그럼으로 滿鮮日報은 學藝面을 強化하는 同時에 今次的 試驗과 마찬가지로 새세로 課題를 내 걸고 文學人에게 積極的으로 글을 씨우지 아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適當한 사람에게 或은 小說(短篇), 詩, 戲曲 等の 作品도 부탁하여 能動的인 活動을 하지 안 허서는 안 될 줄 안다. 그리하여 노픈 것은 바랄 수 업겟스나 그래도 어느 程度까지의 水準을 設定하여야 되겟스며 그 水準을 漸漸 노피기에 힘써야겠다. 따라서 投稿도 받되 嚴選主義로 나가야 되겠다. 或 報酬를 주지 안코 글 씨달랄 수 잇나 하는 等の 謙遜도 잇겟스나 現下의 在滿 文學徒로서 眞實로 文學建設을 爲하는 青年이라면 報酬의 有無를 투정할 사람은 하나도 업슬 줄 안다.

一, 文學徒 自體의 積極的 活動

爲先 作品을 써야겠다. 各自의 專門的 部門에 向하여 小說이면 小說 詩면 詩를 活潑하게 써야겠다. 勿論 評論도 만히 나와야겠다. 活潑하게 쓴다고 하여 濫作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니 『조흔 作品을 만히』의 『모토』로 나가야겠다. 그리함에는 平素의 工夫와 生活의 豐富를 期하여야겠다. 朝鮮 中央文壇 進出의 大望도

조타. 日本文壇 進出의 大望도 조코 世界文壇 進出의 野望은 더욱 조타. 이런 노
픈 水準을 目標코 文學 工夫와 活動을 하는 것이 男兒의 本懷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目的을 遠大하게 가지는 目標가 될지언정 여기에 秋毫만한
虛策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 안다. 우리가 살고 있는 滿洲에서 文學的 活動을 堅
實하게 하여 나가는 곳에 朝鮮, 日本, 世界文壇 進出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 생각
된다.

地方에 散在한 文學徒는 서로 편지로라도 緊密한 連絡을 取하여야겠다. 그리
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가끔 會晤를 가져야겠다. 이리하여 서로 活動의
拍車가 되어야겠다. 文學에 對한 固된 信念을 가져야겠다. 北鄉會의 經驗으로 보
아 우리는 職業的 重壓에 눌리워서는 아니 되겠다. 서로의 連絡은 이런 意味에서
도 必要하다. 早老와 헛된 自尊心을 버려야겠다. 建設期의 文學徒에 잇서는 언
제든지 建設的 進取性이 잇서 適當하다. 우리는 서로 이것을 警戒해야겠다.

一, 文學의 社會的 認識과 先輩의 活動 期待

滿洲는 建設의 나라다. 그림으로 建設期의 特徵으로 文化 方面보다 經濟나 政
治에 致力하는 것은 不得已한 일이다. 이것은 朝鮮人 社會에 잇서 尤甚하여 무슨
會社의 設立이나 官廳의 誘致 가튼 것은 눈을 크게 뜨고 그런 方面에 從事하는
사람은 歡迎하나 文化 方面 特히 文學徒에 對하여는 異端視하는 傾向이 잇서 이
것이 文學 發展에 至大한 影響을 준다고 보는데 文學의 必要性 等を 機會 잇는
대로 社會에 對하여 認識식히어야 될 줄 알며 先輩 大家들은 作品活動에도 參加
하여 後輩들을 積極的으로 指導하여야 될 줄 안다.

一, 政府에 對한 要望

民生部 大臣의 文學賞이 잇스나 이것은 日滿人 作家의 日滿文 作品에 限定되어
잇는 드시 記憶되는데 朝鮮文 作品에도 이 賞을 授與할 만한 作品에 對하여 授賞
하도록 募集 範圍에 너키를 要望하여 마지안는다. 以上으로 拙見을 마치려 함에
잇서 一言을 添한다면 今次 同一 課題 미테 文學徒의 熱烈한 부르지즘이 뒤를 니
어 發表되겠거니와 이것이 一時的인 부르지즘으로 終止된다면 滿洲朝鮮人 文學
에 對하여 아무런 進歩를 意味함이 못 될 것이니 여기에 부르지즘을 우리는

當日부터 實行하여야 될 것을 彼此 約束하여야 될 줄 알며 이리케 하여야만 今番 滿鮮日報가 滿洲朝鮮人 文學을 建設키 爲하여 文學徒에게 忌憚업는 意見을 打診한 意義에도 相副될가 생각한다.

『百의 理論보다 一의 實踐』

滿洲朝鮮人文學建設新提唱(20) — 1940.2.5.

底流에 彷徨하는 情熱 / 大地春陽에 將有事于西疇矣!(上) — 宋志泳

純粹한 文學 理論의 싸달스러운 領域을 쳐나 普遍的으로 생각할 새 文學이란 그 무슨 高遠 難及의 幽玄한 哲理의 分解며 組織이 아니요 吾人의 日常生活을 土臺로 하여 大衆에 浸透되어서 거기에 살이 되고 밥이 되어 卽 生活이 있는 곳에 喜怒哀樂의 意慾이며 情感 形態가 사라져서 그것이 歎咏의 歌謠이건 描破의 小說이건 어서한 方式으로던지 反映되어 大衆과 함께 呼吸을 마칠 수 있는 말하자면 極히 平易明白한 學問이어야 할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勿論 技巧에 있어서 奧妙한 境涯라든가 芳薰 馥郁한 眞 所謂 藝術的인 最上의 逸品에 있어서야 어이 漫忽히 看做할 바이라만 한말로 싸져볼 새 文學에 뜻을 둔 情熱이야말로 泰山을 끼고 北海를 뛰어넘을 氣勢를 누구나 가졌겠지만(事實은 勿 情熱도 갖기 前에 退縮해 식어지버리는 例도 만치만) 아무나 文學을 해서 어느새나 되는대로 올라설 그러케 平坦한 길은 아니리라—.

하므로 오늘날 滿洲에 있어서 朝鮮文學을 云謂하는 것도 形態의 曲直이며 方法의 是非는 且置하고 于先 普遍的인 文學 觀念에서 出發하지 안하면 안 될 줄로 나 스스로 믿고 있다. 그러타 해서 極히 低級에 흐르는 通俗的인 主見에서도 쏘 그리타 해서 知性이니 浪漫이니의 어떤 한 主流를 붓잡고 論議하는 바도 아 文學

을 建設하자는데 있어서 純然한 文學人의 立場을 저나(내가 文學하는 사람이라고 내 鬻심을 不幸히 가지지 못했스니까……) 文學을 즐기는 大衆의 한사람으로서 觀望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回顧 半世紀 우리네 渡滿의 歷史는 진실로 발자욱마다 受難과 困苦의 荊路며 繁蕪이엇었다. 어느 奚暇에 文學을 말하고 藝術을 論할 겨를이 잇섯슬가만 그래도 根底에서 뿌리 기피 싹터오르는 우리네의 情感은 흐리고 어둡지 안혔다. 憂悶愁苦의 險難한 生애의 鬪爭이 그 自體가 하나의 文學的 코다란 要素이엇겠지만 惜乎! 新文學 運動 三十 年의 歷史를 말하고 잇는 朝鮮 안에서조차 아직껏 뿌리지게 내다보는 主觀 하나가 統一되지 못했고 紗라서 남부스럽습시 “이럿소!”하고 내밀 巨大한 作品 하나를 변변히 갖고 잇지 못하거니 況且 生活의 不安에서 境外로 흘러온 그네들에게 큰 成果가 잇섯슬가 부냐. 오직 그러한 가운데서도 盛히 意欲의 端緒만은 불붙고 잇섯슴을 잘 알 수 잇스니 그만도 코다면 큰 것이 아닐 수 업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理想아래서 建國 九 年間 成長의 步趨를 질게 맺고잇는 協和의 이 나라에서 五族이 다함께 向上과 發展을 指標로 하고 나아가는 마땅에서 우리가 企及키 어려운 他部門은 그만두고 文化的인 成長의 길에서 營養을 攝取하고 陶冶를 일삼는 것만은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서 어두운건 밝게 흐린건 맑게 一步 나아가 크게 등글게 또 살지게라도 할 수 잇는 것이엇만 不幸히 우리의 오늘날 걸어 나아가는 길은 文化的으로서 압길을 展望할 세 너무도 萎微하고 汚濁昏迷의 一途에서 彷徨하고 잇슴을 느끼는 이 한 두 사람 쯤만이 아닐 줄로 안다.

紗라서 五十 年의 歲月을 넘은 今日에 이르기까지 文化的 役軍으로서 先頭에서 鼓舞 振作해야 될 文學의 줄거리가 萌芽 그대로 枝茂葉盛의 날은커녕 그냥 시들어지거나 안는가 하는 憂體를 품게 하고 잇는 것이다.

우리라 해서 知能과 感覺이 남만 못할 배 업고 또한 하면 안될 배 업것만 이처럼 沈淪해 잇다는 것은 그 까닭이 那邊에 잇느냐? 迂闊도 아니오 怠慢도 아니오 찾아면 그 因由를 遠近에서 얼마든지 들출 수 잇고 또한 廻避할 口實도 잇슬 줄 안다. 허나 要컨대 그 가장 큰 問題는 主로 生活의 不安定에서 紗르는 모든 逆境에서 일줄로 맞는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어느 程度까지의 자리도 잡혀가고 안팎

그로 무엇을 생각하고 움즈길 만한 틈이 보이니 비록 느꼈스나마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精神의 契起가 時日로 急한 當面의 問題인 만치 全 滿洲의 朝鮮人 을 中心으로 한 文學의 攄食한 建設을 새로운 角度에서 從來와는 달리 提唱하는데 그 意義 單히 文學을 일삼는 一部의 徒輩뿐만이 아니라 우리네 全體의 文化的으로서의 生活을 向上시키는 데 보다 더 棼이 엷는 만치 重且大하다고 본다. 그러면 대체 이 新建設의 方向을 어데로부터 어셔케 取하여야 할 것인가가 問題의 남은 줄거리이다.

—大冬風雪은 이미 지나갓다치고 이제부터 봄벙해 저기 西疇로 호미를 들고나
아가 볼가나—

滿洲朝鮮人文學建設新提唱(完) — 1940.2.6.

新樹立의 知行併難 / 蒼山の 日暮, 거름을 썰리하자 (下) — 宋志泳

新建設 어려운 것이 엷슬 듯하되 先後를 재고 本末을 짜지자면 말로 만이라도 決코 容易한 게 아니다.

잇서가지고 散漫한게 아니라 엷서서 形態부터 捕捉키 힘들다면 語弊가 되겠지 만 實은 잇다는게 눈에 썰락말락하고 그나마 扶植과 培養의 손이 미치질 못하여 長夜의 昏○에 微光이 耿々하니 아지 못케라 어느 歲月에 炯然한 光芒을 나타낼 것이냐?

우리 네일이 都大體 그런게만치면 무엇이냐 한다는 게 龍頭요 蛇尾면 애당초 不如無用 달리 갓다르고 속다르게 羊頭요 狗肉이면 그 또한 稱讚할 배 못되니 여기에 올개 일을 하려는 者 苦憫이 잇고 憂愁가 서리이는 것이라 文學의 新建設이 란 말도 힘들다면 行하는데 잇서서는 그 더욱 難關일 것이다. 그러나 行함보다

于先 그 方法부터 알아야 되니 알고도 못 行하는 게야 無可奈何라 어이리오만 다음의 몇 가지 생각도 雜同散異이긴 하되 그 아는데의 한 길이 아닐까 한다.

첫째 曰 全滿朝鮮人 文藝協會 組織. 廣範圍인 듯하되 실상은 그리 어설푸게 벌어진 일도 아니다. 全般的으로 文化 各 方面도 조치만 그야말로 좀 크고 넓은 問題이니 두고라도 文學 同好家를 널리 糾合하여 하나의 組織體를 만들어써 같이 잇슬망정 마음과 마음의 結合과 琢磨를 圖하자면 多少 簡便한 일인 동시에 그 方法 如何에 차라서는 長足の 隆興을 可히 企待할 수도 있다. 現在 꾸준한 活動을 繼續하고 있는 분으로 朴榮濬, 玄卿駿 等 諸氏 外 南北滿에 有無名의 文學 同志가 모르면 적지 안흔 줄로 알고 잇스며 여기에 누구나 일하는 이만 잇서 唱導한다면 同聲相應의 깃발이 예저기서 날릴 줄로 밋는다.

둘째 曰 同人誌의 發刊. 이게야말로 누구나 갖고 잇는 欲求로 쏘한 어제오늘의 問題만도 아니지만 좀처럼 實現을 못 보는 가장 急한 것인 동시에 가장 어려운 問題이다. 허나 筆者의 成算으로서는 前項 文藝家의 團合體만 잇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줄로 생각한다. 五族이 사는 이 나라에서 다른 民族과 比해 볼 事實 우리는 索寞한 感懷가 그지 업시 써올른다. 요즘 들리는 消息으로 北에서도 南에서도 무엇하나 하느니 마느니 하나 어셔한 成案으로 나아가는지는 몰라허되 어재 탐라하게 밋엄직한 信念이 들지 안는다. 셋째 曰 滿鮮日報 學藝面의 開放 強化. 어쨌든 오늘의 滿洲에서 朝鮮文學을 이만치라도 育成시킨데 잇서서도 그 首功을 滿鮮日報에 돌리지 안을 수 업는 만큼 今後에 잇서서도 오직 하나 依支하는 바일 것이니 좀더 文學人을 爲하여 開放해주는 同時 文學賞의 創設 別途 原稿 募集 優遇 等 여러가지 方法으로 積極인 指導와 擁護를 바라는 同時 社를 向하여 別달리 月刊誌(純文藝誌가 아니라도)가튼 것을 發刊해주고 單行本 가튼 것도 만들어 한도움이 되게 하엿으면 한다. 어느 한 個人이나 少數의 集合體가 움즈김 보다 여러가지 點으로 보아 屢 有利한 條件이 만타고 본다.

넷째 曰 文學人 自體의 發奮. 이것은 무슨 方法도 條件도 必要치 안다. 作家 自身이 意氣를 沮喪하는데 잇서야 두말할 것 업시 頹敗이니까 거기에 成長과 圓熟을 바랄 수 업는 것이다. 그야 文學만으로서 밥을 먹을 수 업는 處地에 當然한

歸趨라고도 보겠지만 그것은 事實로 돌리고 于先 文學을 하나의 娛樂인양 하여 遊興의 氣分으로서 손을 대었다가 실증나면 제맘대로 제어버리는 作家 아닌 作家의 簇出을 썬리는 바이며 同時에 썬까지 讀者를 이끌어 나아갈만한 힘을 갖고 無盡藏으로 깔려 있는 素材를 솜씨 있게 料理해 줄 作家가 나오기를 바란다.

이 외에도 뒤지면 얼마든지 建設에 〇할 만한 案이 만히 잇슬 줄 안다. 그러나 今日 滿洲에 잇는 文學人으로서 共通的인 要望인 以上の 몇 가지를 누구나 알고 또한 누구나 提唱하는 바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웨치고 십다.

蒼山에 해 저물고 길은 멀거니 어이 할게나? 빨리 신발을 매고 총총거름을 처야지!

(筆者는 東亞日報 新京 特派員)